공공데이터 오픈 API 확대 및 포털 고도화



Open API 활용가이드

**개정 이력**

|  |  |  |  |  |  |
| --- | --- | --- | --- | --- | --- |
| **버전** | **변경일** |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 **작성자** | **승인** |
| 1.0 | 2020-08-13 | 최초작성 | 최초작성 | 이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1. 서비스 명세 4](#_Toc530560935)

[**1.1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4](#_Toc530560936)

[가. API 서비스 개요 4](#_Toc530560937)

[나. 상세기능 목록 4](#_Toc530560938)

[다. 상세기능내역 5](#_Toc530560939)

[1) [부산테마여행 국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5](#_Toc530560940)

[2) [부산테마여행 영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33](#_Toc530560940)

[3) [부산테마여행 일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65](#_Toc530560940)

[4) [부산테마여행 중문 간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92](#_Toc530560940)

[5) [부산테마여행 중문 번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117](#_Toc530560940)

[2. OpenAPI 에러 코드정리 140](#_Toc530560941)

**1. 서비스 명세**

**1.1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가. API 서비스 개요

|  |  |  |  |  |
| --- | --- | --- | --- | --- |
| **API 서비스 정보** | **API명(영문)** | RecommendedService | | |
| **API명(국문)** |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 | |
| **API 설명** | 부산관광테마여행의 이름,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좌표, 상세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 | | |
| **API 서비스**  **보안적용**  **기술 수준** | **서비스 인증/권한** | [O] ServiceKey [ ] 인증서 (GPKI/NPKI)  [ ] Basic (ID/PW) [ ] 없음 | | |
|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 전자서명 [ ] 암호화 [O] 없음 | | |
| **전송 레벨 암호화** | [ ] SSL [O] 없음 | | |
| **인터페이스 표준** | [ ] SOAP 1.2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O] REST (GET)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 | |
| **교환 데이터 표준**  **(중복선택가능)** | [O] XML [O] JSON [ ] MIME [ ] MTOM | | |
| **API 서비스**  **배포정보** | **서비스 URL**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 | | |
| **서비스 명세 URL**  **(WSDL 또는 WADL)**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_wadl&type=xml | | |
| **서비스 버전** | 1.0 | | |
| **서비스 시작일** | 2020-08-13 | **서비스 배포일** | 2020-08-13 |
| **서비스 이력** | 2020-08-13: 서비스 시작 | | |
| **메시지 교환유형** | [O]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 | |
| **서비스 제공자** | 이재경 / 부산시 관광진흥과 / 051-888-5204 / bsjklee@korea.kr | | |
| **데이터 갱신주기** | 년 1회 | | |

나. 상세기능 목록

|  |  |  |  |
| --- | --- | --- | --- |
| **번호** | **API명(국문)** | **상세기능명(영문)** | **상세기능명(국문)** |
| 1 |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 getRecommendedKr | 부산테마여행 국문 정보 |
| 2 |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 getRecommendedEn | 부산테마여행 영문 정보 |
| 3 |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 getRecommendedJa | 부산테마여행 일문 정보 |
| 4 |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 getRecommendedZhs | 부산테마여행 중문 간체 정보 |
| 5 |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 getRecommendedZht | 부산테마여행 중문 번체 정보 |

다. 상세기능내역

1) [부산테마여행 국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1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테마여행 국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테마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국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Kr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90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30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강다니엘코스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영도구 | 구군 |
| CATE2\_NM | 구분 | 100 | 0 | 이색여행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07886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28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강다니엘코스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강다니엘 투어’ 따라 부산 구석구석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 부제목 |
| MAIN\_PLACE | 주요장소 | 300 | 0 | 강다니엘코스 | 주요장소 |
| ADDR1 | 주소 | 200 | 0 |  | 주소 |
| ADDR2 | 주소 기타 | 200 | 0 |  | 주소 기타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200 | 0 |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통해 데뷔한 가수 강다니엘.  그의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그의 팬들이 몰려오고 있다. 바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으로.  부산이 강다니엘 덕후 투어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부산 곳곳 그의 숨결이 닿았던 곳은 이미 성지순례길로 유명해진 터. 부산 영도 출신 강다니엘의 모교부터 부산 유명 명소와 맛집까지, 팬심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강다니엘 코스를 소개한다.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강다니엘코스&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영도대교 – 신선중학교 – 흰여울문화마을 - 태종대&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영도대교&lt;/p&gt;먼저 찾아가볼 곳은 국내 유일 도개교 영도대교다. 영도 여행의 시작은 영도대교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 부산 주민이라면 이 장소의 상징성을 모르는 이들이 없다. 강다니엘 역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다리를 수 없이 오갔을 터. 옛 부터 영도와 육지를 잇던 영도대교에선 매일 오후 2시마다 15분간 도개 행사가 열린다. 매일 이 시간이면 영도다리 상판이 하늘을 향해 열리는 특별한 장면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영도대교 도개를 제대로 보려면 남포동 방향에서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신선중학교&lt;/p&gt;영도에 입도했다면 버스를 타고 신선중학교에 들러보자. 강다니엘의 모교인데 그가 영도에서 3년 간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다. 매일 아침 등교를 하며 걸었을 학교 앞 골목부터 운동장, 그의 손길이 남아있을 책걸상들까지. 그의 학창시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설레는 팬들이 있을 거다. 학교에서 내려다보이는 푸른 바다 풍경은 덤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곳을 방문하려면 정숙은 기본.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고등어회 레스토랑&lt;/p&gt;신선중학교에 방문했다면 학교 바로 아래 있는 고등어회 전문 식당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소다. 강다니엘이 모교 선생님과 처음으로 술잔을 기울인 곳이기 때문이다. 고등어라고 하면 흔히 구이나 조림을 떠올리지만, 신선한 고등어가 많은 부산에선 회로 즐기는 경우가 많다. 이곳은 고등어 초회와 해산물 요리가 일품인데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정다운 식당 분위기가 옛 정취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흰여울문화마을&lt;/p&gt;영도 흰여울문화마을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오래된 동네를 새롭게 꾸민 이곳은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린다. 예쁜 벽화와 탁 트인 바다 풍경은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다. 마을 전체가 바다를 마당으로 두고 사는 곳으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분명 목가적 어촌 마을 풍경에 마음을 뺏기게 될 것이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태종대&lt;/p&gt;태종대는 옛 부터 영도 대표 유원지였다. 영도에서 자란 이들이라면 학창시절 태종대로 소풍을 가보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분명 강다니엘도 소풍날 태종대에서 뛰어 놀지 않았을까.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기암괴석의 신비로움을 감상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인 태종대를 도보로 구경하려면 1시간 이상 잡아야 한다. 하지만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저속 기차 ‘다누비 열차’를 타는 방법도 있다.  영도대교로 시작해 태종대까지 둘러 본 강다니엘 코스. 어린 시절 강다니엘이 가수를 꿈꾸며 걸었을 골목부터 영도를 대표하는 명소들까지. 이렇듯 영도는 오롯이 하루를 투자해도 될 만큼 다양하고 알찬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Kr?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강다니엘코스</MAIN\_TITLE>  <CATE2\_NM>이색여행</CATE2\_NM>  <LNG>129.04428</LNG>  <MIDDLE\_SIZE\_RM1/>  <UC\_SEQ>305</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프로듀스 101 시즌 2를 통해 데뷔한 가수 강다니엘.  그의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그의 팬들이 몰려오고 있다. 바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으로.  부산이 강다니엘 덕후 투어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부산 곳곳 그의 숨결이 닿았던 곳은 이미 성지순례길로 유명해진 터. 부산 영도 출신 강다니엘의 모교부터 부산 유명 명소와 맛집까지, 팬심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강다니엘 코스를 소개한다.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강다니엘코스&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영도대교 – 신선중학교 – 흰여울문화마을 - 태종대&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영도대교&lt;/p&gt;먼저 찾아가볼 곳은 국내 유일 도개교 영도대교다. 영도 여행의 시작은 영도대교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 부산 주민이라면 이 장소의 상징성을 모르는 이들이 없다. 강다니엘 역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다리를 수 없이 오갔을 터. 옛 부터 영도와 육지를 잇던 영도대교에선 매일 오후 2시마다 15분간 도개 행사가 열린다. 매일 이 시간이면 영도다리 상판이 하늘을 향해 열리는 특별한 장면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영도대교 도개를 제대로 보려면 남포동 방향에서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신선중학교&lt;/p&gt;영도에 입도했다면 버스를 타고 신선중학교에 들러보자. 강다니엘의 모교인데 그가 영도에서 3년 간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다. 매일 아침 등교를 하며 걸었을 학교 앞 골목부터 운동장, 그의 손길이 남아있을 책걸상들까지. 그의 학창시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설레는 팬들이 있을 거다. 학교에서 내려다보이는 푸른 바다 풍경은 덤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곳을 방문하려면 정숙은 기본.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고등어회 레스토랑&lt;/p&gt;신선중학교에 방문했다면 학교 바로 아래 있는 고등어회 전문 식당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소다. 강다니엘이 모교 선생님과 처음으로 술잔을 기울인 곳이기 때문이다. 고등어라고 하면 흔히 구이나 조림을 떠올리지만, 신선한 고등어가 많은 부산에선 회로 즐기는 경우가 많다. 이곳은 고등어 초회와 해산물 요리가 일품인데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정다운 식당 분위기가 옛 정취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흰여울문화마을&lt;/p&gt;영도 흰여울문화마을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오래된 동네를 새롭게 꾸민 이곳은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린다. 예쁜 벽화와 탁 트인 바다 풍경은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다. 마을 전체가 바다를 마당으로 두고 사는 곳으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분명 목가적 어촌 마을 풍경에 마음을 뺏기게 될 것이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태종대&lt;/p&gt;태종대는 옛 부터 영도 대표 유원지였다. 영도에서 자란 이들이라면 학창시절 태종대로 소풍을 가보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분명 강다니엘도 소풍날 태종대에서 뛰어 놀지 않았을까.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기암괴석의 신비로움을 감상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인 태종대를 도보로 구경하려면 1시간 이상 잡아야 한다. 하지만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저속 기차 ‘다누비 열차’를 타는 방법도 있다.  영도대교로 시작해 태종대까지 둘러 본 강다니엘 코스. 어린 시절 강다니엘이 가수를 꿈꾸며 걸었을 골목부터 영도를 대표하는 명소들까지. 이렇듯 영도는 오롯이 하루를 투자해도 될 만큼 다양하고 알찬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ITEMCNTNTS>  <PLACE>강다니엘코스</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영도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강다니엘 투어’ 따라 부산 구석구석</TITLE>  <MAIN\_PLACE>강다니엘코스</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65</LAT>  </item>  <item>  <MAIN\_TITLE>부산벚꽃투어</MAIN\_TITLE>  <CATE2\_NM>이색여행</CATE2\_NM>  <LNG>128.97269</LNG>  <MIDDLE\_SIZE\_RM1/>  <UC\_SEQ>306</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대한민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벚꽃이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곳,  도시 곳곳에서 혹은 도시를 잠깐 벗어나서 산과 함께, 강과 함께, 바다와 함께 벚꽃을 볼 수 있는 곳, 부산의 봄을 소개한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대저생태공원&lt;/p&gt;대저생태공원은 전국 최대 규모 유채꽃단지다.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어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유채꽃 질 무렵, 벚꽃 잎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연분홍과 노란 물결이 동시에 장관을 만든다. 3월 말이면 어김없이 강서 낙동강30리 일대에선 벚꽃 축제가 열리고 이때가 되면 낙동강변은 흐드러지는 하얀 벚꽃 잎으로 봄의 절정을 향해 간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삼락생태공원&lt;/p&gt;삼락생태공원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데 야생화단지, 자전거도로, 산책코스, 오토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봄이면 낙동제방에 심어진 3.000여 그루의 벚나무가 하얀 꽃터널을 만들어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면 로맨틱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다. 부산의 최고 벚꽃 명소를 꼽을 때 삼락생태공원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든 이유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맥도생태공원&lt;/p&gt;맥도생태공원은 겨울철새들이 날아드는 곳으로 탐방로, 습지데크, 연꽃단지, 수생식물원, 체육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사시사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다. 이곳은 부산의 벚꽃 명소 중에서도 비교적 덜 알려져 있어 한산하게 봄을 만끽할 수 있다. 노점이 없어 호젓한 분위기에서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해운대 달맞이길&lt;/p&gt;부산의 인기 드라이브코스 해운대 달맞이길은 언덕 위에 조성된 카페 거리와 함께 연인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코스다. 특히 벚꽃이 만개한 저녁, 보름달까지 뜨면 달빛과 벚꽃의 몽환적 조화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든다. 천천히 언덕길을 따라 걸으며 점점 화려해지는 벚꽃 군무를 달빛 아래서 감상하는 게 포인트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남천동 벚꽃거리&lt;/p&gt;부산 대표 벚꽃 군락지 남천동 벚꽃거리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다. 삼익비치타운아파트부터 광안리 바닷가로 연결되는 길은 한적하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숨은 명소다. 봄이면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변을 드라이브하거나 벚꽃 아래서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벚꽃철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소음을 낮추는 센스, 잊지 말자.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동대신동 벚꽃거리&lt;/p&gt;부산 사람도 잘 모르는 벚꽃 명소가 또 있다. 바로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벚꽃터널이다.  주택과 아파트 단지 사이로 매년 봄 연분홍빛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번잡한 유명 벚꽃길보다 조용히 봄을 즐길 수 있다. 만개한 벚꽃과 가로등 불빛의 조화가 매력인데 퇴근길에 잠시 들러 봄을 만끽하기 좋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온천천카페거리&lt;/p&gt;온천천카페거리는 새로운 분위기의 카페들로 연중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다. 그러나 이곳이 가장 붐비는 시기는 뭐니 뭐니 해도 벚꽃시즌이다. 낮이면 밝은 분홍빛 벚꽃이 온천천에 반영을 만드는 황홀한 풍경이, 밤이면 가로등 불빛과 어우러진 벚꽃 향연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놓는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황령산벚꽃길&lt;/p&gt;부산의 대표 명산으로 꼽히는 황령산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벚꽃 나무 군락이 형성돼 있다. 봄이면 부산 시내 야경과 함께 벚꽃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특히 벚꽃 잎이 떨어지는 시기, 차로 이 도로를 달리면 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꽃잎 흩날리는 도로 끝에는 봄에 취한 부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황령산벚꽃길  부산의 대표 명산으로 꼽히는 황령산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벚꽃 나무 군락이 형성돼 있다. 봄이면 부산 시내 야경과 함께 벚꽃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특히 벚꽃 잎이 떨어지는 시기, 차로 이 도로를 달리면 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꽃잎 흩날리는 도로 끝에는 봄에 취한 부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ITEMCNTNTS>  <PLACE>부산벚꽃투어</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사상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부산 곳곳, 벚꽃이어라</TITLE>  <MAIN\_PLACE>부산벚꽃투어</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humbL</MAIN\_IMG\_THUMB>  <LAT>35.170444</LAT>  </item>  <item>  <MAIN\_TITLE>유채꽃명소</MAIN\_TITLE>  <CATE2\_NM>이색여행</CATE2\_NM>  <LNG>128.97322</LNG>  <MIDDLE\_SIZE\_RM1/>  <UC\_SEQ>30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3월과 4월, 부산은 온통 노란빛으로 물든다. 부산의 산과 공원이 유채꽃으로 절정을 이루기 때문이다.  탁 트인 바다 풍경의 유채밭,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유채꽃 공원 등 모두 부산의 봄에 만날 수 있는 명소들이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대저생태공원&lt;/p&gt;대저생태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76만㎡의 유채꽃 단지다. 무려 축구장 63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도심과 가까워 유채꽃 시즌이면 항상 인파로 붐빈다. 특히 매년 4월 ‘부산 낙동강유채꽃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이색적 개막식부터 합동결혼식, 음악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저생태공원에서는 무료 자전거 대여가 가능해서 넓은 유채꽃밭을 누비며 하하호호 페달을 밟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이곳은 부산 지역 사진 애호가들을 불러 모으는 야외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너른 유채꽃밭 곳곳에서 예쁜 전경을 프레임에 담는 셔터 소리가 귀를 간질인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삼락생태공원&lt;/p&gt;삼락생태공원은 사상구 삼락동 낙동강 둔치에 자리한 시민공원이다. 매년 봄이면 낙동강을 사이에 둔 벚꽃 터널과 유채꽃밭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4월 초에 ‘삼락유채꽃축제’가 열리면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행락객이 몰려든다. 축제 시즌이면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되고 각종 거리공연 등이 열린다.  삼락생태공원은 자전거전용 도로를 비롯해 산책코스, 오토캠핑장, 수상레포츠타운 등 각종 여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축제기간을 활용해 레저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도 좋겠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온천천 시민공원&lt;/p&gt;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온천천 시민공원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생태하천을 간직한 공간이다.  봄철이면 벚꽃, 유채꽃, 영산홍이 만개해 명품 산책로가 돼 준다. 특히 색색 꽃망울이 하천에 반영을 만드는 장면은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놓쳐선 안 될 장면이다.  온천천 시민공원의 또 다른 백미는 야간에 즐기는 유채꽃 풍경이다. 카페거리에서 바라 본 유채꽃과 벚꽃이 무드등과 조화를 이루는 몽환적 아름다움은 부산의 밤을 더 없이 아름답게 만든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오륙도&lt;/p&gt;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오륙도 해맞이 공원은 스카이워크 뒤편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이 공원이 특별히 아름다워 지는 시기는 유채꽃 망울이 터지면서부터다. 매년 3월말 ~ 4월이면 공원을 둘러싼 해안 절벽과 공원 전체를 뒤덮고 있는 유채꽃이 만발한다.  흐드러지는 노란 유채꽃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 때면 노란 꽃잎이 허공을 수놓는 드라마틱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해안절벽 위 투명한 유리 다리를 통해 바다 절경을 스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도 빼놓지 말자.  봄이면 가장 먼저 벚꽃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지만 전국 최대의 유채 꽃밭이 부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부산 곳곳의 유채 명소들을 따라가다 보면 벚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봄을 제대로 만끽하는 일석이조의 방법 아닐까.  싱그러운 유채 향기를 따라 부산의 봄을 제대로 느껴보자.  </ITEMCNTNTS>  <PLACE>유채꽃명소</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강서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부산 유채꽃명소 추천, 노란 꽃들의 절정</TITLE>  <MAIN\_PLACE>유채꽃명소</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9906</LAT>  </item>  <item>  <MAIN\_TITLE>무장애여행</MAIN\_TITLE>  <CATE2\_NM>이색여행</CATE2\_NM>  <LNG>129.01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0 medium"&gt;코스1 : 도시철도 해운대역-아쿠아리움-동백공원 해안산책로/누리마루 APEC하우스-더베이101&lt;/p&gt;  도시철도 해운대역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지상으로 올라오면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구남로를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를 갖춘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동백공원 해안산책로는 공원 전체가 휠체어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휠체어 무료대여가 가능하다. 아름다운 산책로 곳곳에서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으며 산, 바다, 광안대교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풍경은 동백섬의 자랑이다.  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에서 야경을 즐기며 식사나 차를 즐길 수도 있다. 이곳에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lt;p class="font-size20 medium"&gt;코스2 : 송도해수욕장,스카이워크,케이블카-암남공원전망대&lt;/p&gt;  송도해수욕장 입구에는 완만한 경사의 휠체어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다. 바다 위에 설치된 국내 산책로 중 가장 긴 스카이워크 또한 출입이 용이하다.  송도해상케이블카에 전동휠체어는 안전상 탑승이 불가하므로 현장에 갖춰진 일반 휠체어로 갈아탄 후, 케이블카에 탑승할 수 있다. 암남공원 정류장 스카이파크 전망대에서 바다전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전망대 내 장애인 화장실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송도 암남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인데 산책로를 따라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며 시원한 바닷바람과 해안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lt;p class="font-size20 medium"&gt;코스3 : 송정해수욕장-수산과학관-오랑대공원-대변항-죽성성당&lt;/p&gt;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설치된 데크형 산책로는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고 산책로 중간에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  멋진 야외 전망대를 가진 국립수산과학관에도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갖춰져 있으며 전시관은 무료입장이다.  일출명소 오랑대공원은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휠체어접근 가능 산책로로 유명하다. 오랑대 인근 대변항은 기장 멸치로 잘 알려진 곳으로 아름다운 등대가 바라보이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드라마 촬영세트로 유명해진 죽성성당은 바다 전망과 성당 건물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휠체어 통행은 가능하나 주차공간이 넉넉지 않다.  &lt;p class="font-size20 medium"&gt;코스4 : 영도대교-깡깡이마을-절영해안산책로-태종대유원지&lt;/p&gt;  매일 오후 2시에 도개행사를 진행하는 영도대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이지만 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 구경하는 자리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리 조선소가 몰려 있던 대평동 깡깡이마을은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며 숨어있는 예술작품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도 마을 곳곳에 선박수리소와 공업사가 영업 중이어서 주말 혹은 통합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절영해안산책로는 입구에서 흰여울 터널까지 휠체어통행이나 도보이동이 쉬운 편으로 영도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코스이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  태종대는 다누비열차를 이용해 유원지 전체를 둘러볼 수 있고, 휠체어 또한 대여 가능하다. 태종대의 기암괴석과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코스3 (송정해수욕장-수산과학관-오랑대공원-대변항-죽성성당)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설치된 데크형 산책로는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고 산책로 중간에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  멋진 야외 전망대를 가진 국립수산과학관에도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갖춰져 있으며 전시관은 무료입장이다.  일출명소 오랑대공원은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휠체어접근 가능 산책로로 유명하다. 오랑대 인근 대변항은 기장 멸치로 잘 알려진 곳으로 아름다운 등대가 바라보이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드라마 촬영세트로 유명해진 죽성성당은 바다 전망과 성당 건물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휠체어 통행은 가능하나 주차공간이 넉넉지 않다.  코스4 (영도대교-깡깡이마을-절영해안산책로-태종대유원지)  매일 오후 2시에 도개행사를 진행하는 영도대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이지만 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 구경하는 자리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리 조선소가 몰려 있던 대평동 깡깡이마을은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며 숨어있는 예술작품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도 마을 곳곳에 선박수리소와 공업사가 영업 중이어서 주말 혹은 통합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절영해안산책로는 입구에서 흰여울 터널까지 휠체어통행이나 도보이동이 쉬운 편으로 영도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코스이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  태종대는 다누비열차를 이용해 유원지 전체를 둘러볼 수 있고, 휠체어 또한 대여 가능하다. 태종대의 기암괴석과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ITEMCNTNTS>  <PLACE>무장애여행</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해운대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관광을 선사하는 부산 무장애 여행지</TITLE>  <MAIN\_PLACE>무장애여행</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7614</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일정여행</CATE2\_NM>  <LNG>129.08714</LNG>  <MIDDLE\_SIZE\_RM1/>  <UC\_SEQ>31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부산의 오래된 바다, 부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 부산의 새로운 바다.  여기 부산의 삼색 바다를 여행하며 동서를 가로지르는 당일코스가 있다.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추천코스&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태종대 - 흰여울문화마을 - 국제시장 - 용두산공원 - 오륙도 - 광안리해수욕장/광안대교 - 해운대해수욕장 - 동백해안산책로&lt;/p&gt;  출발은 서쪽 영도 바다에서 시작한다. 영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태종대라면 더 없이 좋다.  맑은 날이면 대마도까지 조망할 수 있고 사시사철 멋진 기암절벽에 부서지는 하얀 포말을 감상할 수 있다. 다누비 열차를 이용해 태종대 전체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데 초여름이면 수국꽃밭이 여행자를 반겨준다.  피란민이 영도 절벽에 판자를 덧대 살며 형성되었다는 흰여울문화마을. 깎아지른 절벽아래 해안을 따라 멋진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마을 곳곳에 위치한 벽화와 아기자기한 카페, 사진관 등을 둘러보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관람객이 많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흰여울문화마을에서는 촬영장소 인증샷을 위해 줄을 서는 것조차 즐겁다.  국제시장을 주제로 촬영한 영화가 있을 정도로 피란민의 애환이 남아 있는 이곳은 여기저기 먹을거리가 많아 출출한 배를 달래기에 좋다. 구제물품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런 저런 구경으로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국제시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는 용두산 공원이 있다. 공원 한가운데 부산의 랜드마크 부산타워가 우뚝 솟아 있고 이곳 전망대에 오르면 바다 위를 오가는 배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등 다이내믹 부산의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다.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오륙도 풍경을 담기 위해 동쪽으로 순간이동. 높디높은 절벽위에 투명유리 스카이워크가 조성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아찔한 경험까지 선사하는 오륙도는 일출·일몰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질 무렵 방문해 아름다운 부산 바다의 일몰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일몰 후에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겨보자. 광안대교의 멋들어진 야경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곳, 매일 밤 10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광안대교는 밀려드는 파도소리에 춤을 추듯 화려한 쇼를 연출한다.  광안리 바다와 아주 가까이 위치하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른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전통시장을 비롯하여 백사장 뒤로 질서정연하게 형성된 포장마차촌의 먹거리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분식, 한식, 야식,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까지 부산의 맛을 맘껏 즐겨보라.  해운대 끝에서 이어져 동백섬을 둘러싸는 동백해안산책로. 이곳은 2005년 APEC 정상회담 회의장으로 사용됐던 누리마루가 있는 곳이다. 바다를 감아 돌며 걷는 산책로에선 광안리와는 또 다른 매력의 해운대 야경이 기다리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해온 태종대부터 피란민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흰여울문화마을과 국제시장. 새로운 풍경으로 여행자를 맞이하고 있는 오륙도와 해수욕장들까지.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당일코스지만 알짜배기 부산을 만나기위해선 조금 부지런해져도 되지 않을까.  </ITEMCNTNTS>  <PLACE>당일코스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영도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부산 당일여행의 정석, 동서로 가로지르기</TITLE>  <MAIN\_PLACE>당일코스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512</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일정여행</CATE2\_NM>  <LNG>129.097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8</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아이들이 있는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에게는 교육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 깊은 여행을 추천한다.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으니 당일 코스라고 얕보지 마시라.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추천코스&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유엔기념공원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오륙도 - 광안리해수욕장/광안대교 - 동백해안산책로 - 해운대해수욕장 - 달맞이길 - 용궁사&lt;/p&gt;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공동묘역이 조성돼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이 잠들어 있다. 이름 모를 군인들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과 전사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 사이로 참전국 국기가 펄럭이는 모습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절로 숙연케 한다. 세계 곳곳에서 참배객들이 방문하는 모습은 유엔기념공원만의 풍경이기도 하다.  유엔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의 비극을 느낄 수 있었다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일제강점기 뼈아픈 강제동원의 참상을 만날 수 있다. 지난 2015년 개관한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그 아픔을 기억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다.  역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오륙도가 위치한다. 밀물엔 6개, 썰물엔 5개의 섬이 된다는 오륙도가 신비롭다. 해맞이공원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스카이워크, 투명한 바닥에 들어서면 마치 에메랄드 빛 바다 위를 걷는 듯 아찔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오륙도의 기괴한 해안절경은 부산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함 중 하나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사시사철 설렘을 간직한 여행자들로 붐비는 곳이다. 오륙도와는 달리 세련된 도시 분위기와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과 푸른 바다 위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광안대교는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다.  광안리 해수욕장을 만났으니 해운대 해수욕장도 빼놓을 수는 없을 터. 광안리와 해운대 사이에 있는 동백섬에 들러 산책로를 먼저 걸어보자. 동백섬에는 동백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숲길을 걷는 묘미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위로 달이 뜨는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바로 달맞이길이다. 구불구불 언덕 산책로를 따라 형성된 예쁜 길, 갤러리며 카페며 주위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봄이 오면 길을 따라 만개한 벚나무 덕에 벚꽃터널이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중턱에 위치한 해월정 쉼터에서 불어오는 해풍에 잠시 눈을 감아본다.  전국의 수많은 사찰 중에서도 바다와 가장 가까워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바로 해동용궁사이다.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는 사찰의 고즈넉함과 묘하게 어우러져 특유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에메랄드빛 바다 풍경을 배경 삼아 소원 하나는 꼭 빌어보자. 해동용궁사를 방문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이 간직한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알찬 당일코스.  부산이 가진 매력을 짧고 굵게 만나고 싶다면 이 코스를 추천한다.  </ITEMCNTNTS>  <PLACE>당일코스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남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amp; 자연 당일코스</TITLE>  <MAIN\_PLACE>당일코스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humbL</MAIN\_IMG\_THUMB>  <LAT>35.128017</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일정여행</CATE2\_NM>  <LNG>129.11865</LNG>  <MIDDLE\_SIZE\_RM1/>  <UC\_SEQ>319</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보기만 해도 답답했던 속이 탁 트이는 듯한 바다 풍경이 그리운가. 여기 부산 바다의 매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당일코스가 있다.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추천코스&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광안리해수욕장/광안대교 - 해운대해수욕장 - 부산아쿠아리움 - 달맞이길/문탠로드 - 청사포 - 용궁사&lt;/p&gt;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광안대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이곳은 사시사철 여행자로 북적인다. 사람들은 낮과 밤이 선사하는 각기 다른 광안리해수욕장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 특히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가을밤이면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는 화려한 불꽃의 향연으로 물든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넓고 고운 백사장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으로 부산 시민보다 여행자로 더 북적이는 곳이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산책코스가 잘 갖춰져 있고 그 중 아름답기로 소문난 동백해안산책로는 바다, 바람, 그리고 도시풍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는 코스이다. 해운대의 또 다른 즐길거리 부산아쿠아리움도 방문해보자. 살아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머리 위로 유유자적하는 상어와 가오리는 감탄을 자아낸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송정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달맞이길을 지나야한다. 달빛이 내려앉은 해운대 앞바다의 진풍경을 가장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달맞이길이라 이름 붙여진 이 곳은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달맞이길 옆 해안을 따라 조성된 문탠로드는 순환산책로로 평소 옷차림에 운동화만 있다면 도보에 무리가 없다. 솔숲 사이 바다 냄새 느끼며 느린 걸음으로 다녀오는 가벼운 산책길도 경험해보자.  한적한 바다와 조용한 포구 풍경이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청사포. 푸른 뱀(靑蛇浦)의 전설을 가진 마을이 푸른 모래(靑沙浦)의 마을로 바뀌었다고 한다. 골목마다 생동감 넘치는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고 하얗고 빨간 두 개의 등대와 해안 절벽 위 다릿돌전망대가 여행자를 반기는 곳.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듯 철길 따라 걷는 길에 이름 모를 꽃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최근에는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아 청사포의 풍경에 매료된 여행자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바다와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 위 사찰이라 불리는 해동용궁사. 경내 어느 곳이든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해수관음대불에 인사드리고 바다를 마주하면 간절하던 소원이 이루어진 마냥 입가에 절로 미소가 찾아온다. 해안 절벽에 자리하고 있어 다리를 건너고 계단도 오르내려야만 사찰을 돌아볼 수 있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찾아 돌며 만나는 바다의 묘미 또한 해동용궁사만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부산 바다.  숲과 사람, 바다의 매력을 하루 만에 만나볼 수 있는 부산바다 당일치기코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부산 바다의 매력을 제대로 만나보자.  </ITEMCNTNTS>  <PLACE>당일코스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수영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부산은 바다지, 부산바다 당일치기</TITLE>  <MAIN\_PLACE>당일코스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5311</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일정여행</CATE2\_NM>  <LNG>129.03648</LNG>  <MIDDLE\_SIZE\_RM1/>  <UC\_SEQ>32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추천코스&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1일차 : 영도대교 - 흰여울문화마을/절영해안산책로 - 태종대 - 국제시장/깡통시장 - 용두산공원  2일차 : 해운대해수욕장 - 아쿠아리움 - 동백해안산책로(누리마루APEC하우스) - 오륙도스카이워크 - 이기대해안산책로 - 광안대교&lt;/p&gt;  영도대교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영도로 향하는 관문인 영도대교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이별한 가족들이 훗날 만남을 기약하던 유명한 다리였다. 한국 최초의 도개교로 매일 오후 2시 도개행사가 열린다. 흰여울문화마을과 마을 아래 절영해안산책로에서는 영화촬영 장소 찾기, 아기자기한 카페 구경하기, 바다 전망 인생샷 찍기 등으로 매번 분주하다. 영도에 왔다면 뛰어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태종대도 놓쳐서는 안 된다. 맑은 날 전망대에 오르면 대마도까지 조망할 수 있고 다누비열차를 이용해 태종대 전체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국제시장은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전쟁의 슬픈 역사가 남아 있는 곳이다. 다양한 구제 물품과 수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장 구경을 하다 허기가 지면 인근 깡통시장으로 걸음을 옮겨보자. 맛도 가격도 착한 주전부리의 진수가 기다리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용두산 공원이 자리해 있다. 부산 랜드마크인 부산타워 전망대는 일몰시간이면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에 붉게 빛나는 부산항, 영도, 남포동, 국제시장 등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해가 진 후, 환상적 야경을 눈에 담으며 첫째 날을 마무리한다.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 해운대에서 시작하는 여행 2일차.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자 많은 인파가 찾는 곳인 만큼 주변에는 숙박 시설과 오락 시설들이 잘 조성돼 있다. 부산 대표 실내관광명소인 부산아쿠아리움에서는 살아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간대별로 다양한 수중 공연이 펼쳐진다.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품 해안산책로 동백섬이다. 해운대 해변 끝자락에서 시작해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거쳐 더베이101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이동하거나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코스를 잡아도 좋다. 하얀 등대가 반기는 전망대에서 시원한 부산 앞바다와 웅장한 광안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부산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가진 명소 오륙도다. 해맞이공원과 스카이워크에서 만나는 에메랄드 빛 부산 앞바다가 아름다운 곳이다. 투명 유리바닥 스카이워크에서의 짜릿한 경험은 오륙도가 선사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오륙도는 이기대 해안산책로로 이어진다. 오르락 내리락 경사가 있는 트레킹 코스긴 하지만 해안을 따라 걷는 길이 보여주는 멋진 경관을 놓칠 수는 없다.  젊음의 열기가 넘쳐나는 도심 속 바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한다. 해가 지면 나타나는 다이아몬드브릿지 광안대교는 10만 가지 이상의 LED가 만들어내는 황홀한 불빛으로 광안리 해변을 물들인다.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가는 여행, 부산 바다가 간직한 여러 얼굴을 만나러 가는 길은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다.  </ITEMCNTNTS>  <PLACE>1박2일코스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영도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1박 2일에 완성하는 부산 해안선 완전 정복!</TITLE>  <MAIN\_PLACE>1박2일코스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humbL</MAIN\_IMG\_THUMB>  <LAT>35.0955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일정여행</CATE2\_NM>  <LNG>129.0874</LNG>  <MIDDLE\_SIZE\_RM1/>  <UC\_SEQ>321</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추천코스&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1일차 : 태종대 - 송도해수욕장 - 감천문화마을 - 국제시장/깡통시장 - 용두산공원  2일차 : 광안대교 - 해운대해수욕장 - 동백해안산책로/누리마루APECA하우스 - 달맞이고개 - 송정 - 해동용궁사&lt;/p&gt;  영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태종대는 울창한 숲과 절벽,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다. 다누비열차를 타고 덜컹덜컹 태종대 전체를 순환해도 좋고, 해상유람선에 올라 출렁이는 파도 느끼며 태종대를 바라봐도 좋다.  영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송도해수욕장은 하늘과 땅 모두에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누렸다면, 구름산책로 위를 걸으며 투명한 바닥의 아찔함을 느껴 봐도 좋겠다.  한국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은 계단식 주거형태와 미로 같은 골목길 등 독특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피난민의 터전으로 만들어 지기 시작한 마을은 이제 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명소가 됐다. 설치미술품과 포토존 등이 마을 곳곳을 채우고, 예술가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직접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방 체험에 나설 수도 있다.  중구에 위치한 부산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과 깡통시장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소다.  국제시장에는 먹자골목, 구제용품 골목이 눈길을 끄는데 시장 내 609공간에선 다양한 문화공연까지 열린다. 먹방의 진수 부평 깡통시장은 전 세계 다문화 먹거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이 특징이다.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용두산공원은 부산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부산타워가 있는 곳이다. 부산타워 전망대에서는 도시와 항구의 모습을 한 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해지는 부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여행의 둘째 날은 광안리에서 시작해 보자. 광안리해변을 따라 조성된 각양각색의 카페가 여행자를 기다리고, 랜드마크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시간을 즐기는 곳.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연인과 함께 낭만이 가득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든다.  부산바다라 하면 광안리와 더불어 해운대를 빼 놓을 수 없다. 희고 고운 모래를 가진 해운대 백사장과 그 끝자락에 위치한 동백섬을 놓쳐선 안 된다.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안길을 따라가는 동백해안산책로에서는 바다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지점에서 APEC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APEC 하우스를 만나게 된다.  달빛을 맞이하는 언덕 달맞이길의 정상에는 월출 명당 해월정이 있다. 해월정에서 이어지는 문탠로드를 따라 난 해안산책로는 삼포해안길 미포와 청사포, 구덕포로 이어진다.  국내 서핑의 메카로 떠오른 송정해수욕장에서 휴양과 레저를 동시에 즐겨보자. 해양레포츠 관련 시설이 즐비하고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는 곳, 송정해수욕장이다.  바다 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해동용궁사는 대변항까지 이어지는 해안산책로의 시작점이다. 경내 어디서든 푸른 동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사찰로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준다는 기도도량이다.  \*\*\* 원 글에 소개된 삼포해안길의 ‘미포철길’은 공사로 인해 2020년 6월까지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  </ITEMCNTNTS>  <PLACE>1박2일코스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영도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두 마리 토끼, 서부산과 동부산을 잡자</TITLE>  <MAIN\_PLACE>1박2일코스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06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일정여행</CATE2\_NM>  <LNG>129.16003</LNG>  <MIDDLE\_SIZE\_RM1/>  <UC\_SEQ>322</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추천코스&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1일차 : 해운대해수욕장 - 아쿠아리움 - 동백섬 - 달맞이길 -해동용궁사 - 기장죽성성당  2일차 : 송도해수욕장 - 암남공원/송도해안볼레길 - 아미산전망대 - 다대포해수욕장/꿈의낙조분수&lt;/p&gt;  이제는 전 세계 여행자가 찾는 해운대해수욕장. 양질의 모래로 가득한 새하얀 백사장과 해수욕장 주변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구남로를 중심으로 주말마다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들로 여행자의 즐거움이 업그레이드된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빼놓지 않고 찾아가 봐야할 곳 중 하나는 부산아쿠아리움이다. 부산, 경남 지역 대표 해양 테마파크로 바다 속을 가로질러 걷는 듯한 터널수족관은 오랫동안 관람객의 시선을 잡는다.  해운대 바다의 진정한 매력은 동백섬에서 발산된다. 아름다운 해안산책로를 끼고 있는 동백섬은 봄이 오기 전 만개하는 동백꽃과 초록으로 우거진 숲이 어우러져 색다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장소다.  부산 드라이브 코스로 빠지지 않는 달맞이길에선 잠시 차에서 내려 걸어보길 추천한다. 달맞이길과 연결된 문탠로드는 가벼운 산보만으로 상쾌한 기분을 전해준다. 정상에는 월출 명당인 해월정과 운치 있는 카페들이 즐비하다.  기장 바다와 이어진 육지의 끝자락에 해동용궁사가 있다. 바다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 덕에 연중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드라마 촬영 당시 세트로 지어진 기장 죽성성당은 잔잔한 파도와 시원한 바람, 성당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이 잘 어우러지는 장소다. 뾰족 첨탑과 빨간 지붕이 푸른 바다를 만나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4계절 다양한 연령층이 찾을 수 있는 복합해양휴양지, 송도해수욕장은 해상케이블카와 구름산책로가 어우러진 최고의 바다 경관을 자랑하며 100년 송도의 명성을 되찾았다. 먼 바다 점점이 떠 있는 대형선박이 몽환의 바다를 선물하고, 발 아래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의 아찔한 장관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해안볼레길과 암남공원은 송도해수욕장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을 안겨준다. 기암괴석이 솟아 있는 해안선을 따라 데크로 설치한 해안볼레길을 걸으며 그림 같은 남해바다를 감상하고, 우거진 숲길이 매력적인 암남공원에서 삼림욕을 즐긴다.  낙동강 하구와 만나 삼각주의 절경과 일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아미산전망대. 모래섬, 철새, 낙조 등 천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운 갈대밭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장관이다.  해질녘에는 부산에서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다대포해수욕장으로 가보자. 바다에 금빛가루를 뿌리며 넘어가는 붉은 태양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황홀하다. 형형색색 조명이 함께하는 초대형 음악 분수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를 만나면 하늘로 높이 치솟는 분수공연에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동해바다의 화려함과 남해바다의 잔잔함이 진한 여운을 남기는 이번 여행코스는 부산을 ‘잊을 수 없는 여행지’로 만들어줄 것이다.  </ITEMCNTNTS>  <PLACE>1박2일코스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해운대구</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동해바다의 화려함과 남해바다의 잔잔함을 느끼는 부산여행</TITLE>  <MAIN\_PLACE>1박2일코스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humbL</MAIN\_IMG\_THUMB>  <LAT>35.15841</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90</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2) [부산테마여행 영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2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테마여행 영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테마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영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En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70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30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강다니엘코스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Yeongdo-gu | 구군 |
| CATE2\_NM | 구분 | 100 | 0 | Unique Tour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07886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28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Kang Daniel Tour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Visit every corner of Busan along the Kang Daniel Tour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 부제목 |
| MAIN\_PLACE | 주요장소 | 300 | 0 | Kang Daniel Tour | 주요장소 |
| ADDR1 | 주소 | 200 | 0 |  | 주소 |
| ADDR2 | 주소 기타 | 200 | 0 |  | 주소 기타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200 | 0 |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inger Kang Daniel made his debut in Produce 101 Season 2.  His popularity attracts his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 his hometown, Busan.  Busan is in the spotlight, thanks to the Kang Daniel tour.  Places all over Busan that his breath has touched have already been famous as a pilgrimage.  From his alma mater in Yeongdo, where he was born, to Busan’s famous attractions and restaurants,  let us jump into the Kang Daniel tour that satisfies both the hearts of his fans and allow them to go sightseeing at once.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Kang Daniel Tour Course&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Yeongdodaegyo Bridge - Shinseon Middle School – Daltteune - Huinnyeoul Culture Village - Taejongdae Park&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Yeongdodaegyo Bridge&lt;/p&gt;The first spot to visit is Yeongdodaegyo Bridge—the only bascule bridge in Korea. It is no wonder that a trip to Yeongdo begins with Yeongdodaegyo Bridge. If you’re from Busan, you may know its symbolism. Kang Daniel must have also crossed this bridge, more times than he could count, with his family and friends. Yeongdodaegyo Bridge, which has connected Yeongdo to its mainland for ages, is open for 15 min at 2:00 p.m. Every day, people flock to see the bridge deck lifted toward the sky. If you want to see how the bridge works, you should watch it from Nampo-dong.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Shinseon Middle School&lt;/p&gt;If you enter Yeongdo, take a bus to visit Shinseon Middle School. It is Kang Daniel’s alma mater, where he spent three years studying in Yeongdo—from the alleys, which he walked to school every morning to the playground, even to old school desks and chairs that he might have used. Some of his fans must feel excited just by imagining his school days while watching all the stuff he touched. Moreover, the blue oceanic view from the school is a bonus. To avoid interrupting students’ learning, you should observe silence.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A sliced raw mackerel restaurant&lt;/p&gt;You can’t miss the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sliced raw mackerel after visiting Shinseon Middle School, as it was where Kang Daniel first drank with his teacher.  Their tangy mackerel salad and seafood are beyond comparison. Thus, this restaurant may be small but feels big enough to create a cozy and friendly retro atmosphere.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Huinnyeoul Culture Village&lt;/p&gt;Huinnyeoul Culture Village is one of the attractions in Yeongdo that you shouldn’t miss. Known as Santorini in Korea, it was reborn by the local artists and residents who joined in renovating this old neighborhood. Filled with beautifully crafted murals together with a clear view of the sea, this place is perfect for taking the best shot in your life. In addition, the idyllic landscape of the fishing village will leave you breathless, as you walk along the narrow alleys in the village, facing the sea as its yard.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Taejongdae Park&lt;/p&gt;Taejongdae Park has been a representative recreation area of Yeongdo since ancient times. Those who grew up in Yeongdo would always go on a picnic to the park as a schoolchild. Imagine Kang Daniel playing and jumping around on a picnic. Can you picture it? It takes more than an hour to look around Taejongdae Park on foot while appreciating a vast expanse of sea and the mysteries of unique rock formation. If walking is a little difficult, you can take the slow train called Danubi Train.  Starting with Yeongdodaegyo Bridge, the Kang Daniel tour course ends with a visit to Taejongdae Park. From the alleys along which Kang Daniel dreamed of being a singer as a child to its famous destinations, Yeongdo takes pride in rich and diverse views that fully deserve your attention for one day.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En?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강다니엘코스</MAIN\_TITLE>  <CATE2\_NM>Unique Tour</CATE2\_NM>  <LNG>129.04428</LNG>  <MIDDLE\_SIZE\_RM1/>  <UC\_SEQ>305</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Singer Kang Daniel made his debut in Produce 101 Season 2.  His popularity attracts his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 his hometown, Busan.  Busan is in the spotlight, thanks to the Kang Daniel tour.  Places all over Busan that his breath has touched have already been famous as a pilgrimage.  From his alma mater in Yeongdo, where he was born, to Busan’s famous attractions and restaurants,  let us jump into the Kang Daniel tour that satisfies both the hearts of his fans and allow them to go sightseeing at once.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Kang Daniel Tour Course&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Yeongdodaegyo Bridge - Shinseon Middle School – Daltteune - Huinnyeoul Culture Village - Taejongdae Park&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Yeongdodaegyo Bridge&lt;/p&gt;The first spot to visit is Yeongdodaegyo Bridge—the only bascule bridge in Korea. It is no wonder that a trip to Yeongdo begins with Yeongdodaegyo Bridge. If you’re from Busan, you may know its symbolism. Kang Daniel must have also crossed this bridge, more times than he could count, with his family and friends. Yeongdodaegyo Bridge, which has connected Yeongdo to its mainland for ages, is open for 15 min at 2:00 p.m. Every day, people flock to see the bridge deck lifted toward the sky. If you want to see how the bridge works, you should watch it from Nampo-dong.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Shinseon Middle School&lt;/p&gt;If you enter Yeongdo, take a bus to visit Shinseon Middle School. It is Kang Daniel’s alma mater, where he spent three years studying in Yeongdo—from the alleys, which he walked to school every morning to the playground, even to old school desks and chairs that he might have used. Some of his fans must feel excited just by imagining his school days while watching all the stuff he touched. Moreover, the blue oceanic view from the school is a bonus. To avoid interrupting students’ learning, you should observe silence.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A sliced raw mackerel restaurant&lt;/p&gt;You can’t miss the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sliced raw mackerel after visiting Shinseon Middle School, as it was where Kang Daniel first drank with his teacher.  Their tangy mackerel salad and seafood are beyond comparison. Thus, this restaurant may be small but feels big enough to create a cozy and friendly retro atmosphere.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Huinnyeoul Culture Village&lt;/p&gt;Huinnyeoul Culture Village is one of the attractions in Yeongdo that you shouldn’t miss. Known as Santorini in Korea, it was reborn by the local artists and residents who joined in renovating this old neighborhood. Filled with beautifully crafted murals together with a clear view of the sea, this place is perfect for taking the best shot in your life. In addition, the idyllic landscape of the fishing village will leave you breathless, as you walk along the narrow alleys in the village, facing the sea as its yard.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Taejongdae Park&lt;/p&gt;Taejongdae Park has been a representative recreation area of Yeongdo since ancient times. Those who grew up in Yeongdo would always go on a picnic to the park as a schoolchild. Imagine Kang Daniel playing and jumping around on a picnic. Can you picture it? It takes more than an hour to look around Taejongdae Park on foot while appreciating a vast expanse of sea and the mysteries of unique rock formation. If walking is a little difficult, you can take the slow train called Danubi Train.  Starting with Yeongdodaegyo Bridge, the Kang Daniel tour course ends with a visit to Taejongdae Park. From the alleys along which Kang Daniel dreamed of being a singer as a child to its famous destinations, Yeongdo takes pride in rich and diverse views that fully deserve your attention for one day.  </ITEMCNTNTS>  <PLACE>Kang Daniel Tour</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Yeongdo-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Visit every corner of Busan along the Kang Daniel Tour</TITLE>  <MAIN\_PLACE>Kang Daniel Tour</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65</LAT>  </item>  <item>  <MAIN\_TITLE>부산벚꽃투어</MAIN\_TITLE>  <CATE2\_NM>Unique Tour</CATE2\_NM>  <LNG>128.97269</LNG>  <MIDDLE\_SIZE\_RM1/>  <UC\_SEQ>306</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et’s see the spots where cherry blossoms bloom first in Korea, except Jeju Island, and  where you can enjoy them along the streets of every city or out of town  while appreciating mountains, rivers, and the sea.  Come and feel the spring of Busan.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Daejeo Eco Park&lt;/p&gt;Daejeo Eco Park is the largest canola flower field in South Korea. It provides various sports facilities, so you can enjoy and relax during your free time. When canola flowers fall, cherry blossoms begin to bloom, creating a spectacular view of pink and yellow waves. At the end of March, cherry blossom festivals take place in the Nakdonggang Riverside Samsimni in Gangseo. The vast riverside of the Nakdonggang River reaches its peak of spring filled with splendid white cherry blossoms.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Samnak Eco Park&lt;/p&gt;Samnak Eco Park is famous as a bird sanctuary for migrating species. It consists of wildflower gardens, bicycle paths, walking trails, and auto campgrounds. Particularly in spring, more than 3,000 cherry trees planted along the Nakdonggang Riverside create a white flower tunnel. When the sun sets and the lights are turned on, the park creates a romantic atmosphere. Thus, Samnak Eco Park’s name has never been removed from the list as one of the best cherry blossom attractions in Busan.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Maekdo Eco Park&lt;/p&gt;Habitat for migratory birds in winter, Maekdo Eco Park is loved by citizens in all seasons because of its trails, wetland decks, lotus colony, aquatic botanical garden, and sports facilities. This park is relatively less known to people among the cherry blossom attractions in Busan, allowing you to appreciate spring without having to rush the experience. Above all, Maekdo Eco Park, with no stalls, is a perfect spot for those who want to enjoy the cherry blossoms in a quiet and relaxing atmosphere.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Haeundae Dalmajigil Road&lt;/p&gt;As one of the best driving roads in Busan, Dalmajigil Road in Haeundae is lined up with diverse restaurants and cafés, loved by couples. The dreamy harmony of the moonlight and the cherry blossoms create an unforgettable beauty, especially in the evening when cherry blossoms are in full bloom beneath a full moon. As you stroll along the hillside road, you’ll be awestruck at the marvelous scene of cherry blossoms in the moonligh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Namcheon-dong Cherry Blossom Street&lt;/p&gt;Namcheon-dong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herry blossom habitats in Busan, while Namcheon-dong Cherry Blossom Street is popular among foreign tourists. On the other hand, the street from Samick Beach Apartment to Gwangalli Beach is a hidden spot where you can enjoy cherry blossoms. In spring, you can easily find people who drive in the apartment complex or create memories under the cherry blossoms. During the cherry blossom season, make sure to observe silence for the residents living nearby.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Dongdaesin-dong Cherry Blossom Street&lt;/p&gt;Another cherry blossom attraction that even Busan citizens are not aware of is the cherry blossom tunnel in Samik Apartment, Dongdaesin-dong.  Every spring, pink cherry blossoms bloom beautifully between the houses and in the apartment complex. Although it’s not yet well known to people yet, you can enjoy a quieter spring here than other crowded, famous cherry blossom roads.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under the streetlights are fascinating, so why not stop by on your way home from work?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Oncheoncheon Café Street&lt;/p&gt;Oncheoncheon Café Street is lined up with unique and exotic cafés that attract young people all year round. Above all, it is most crowded in the cherry blossom season. During the day, the beautiful scenery of bright pink cherry blossoms reflected in the Oncheoncheon stream catches people’s eyes, while at night, they are fascinated with a feast of cherry blossoms mingling with the streetlights.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Hwangnyeongsan Cherry Blossom Street&lt;/p&gt;Hwangnyeongsan Mountain, one of Busan’s most famous mountains, has a cherry tree habitat formed along the road to the top. In spring, it is an ideal place to enjoy cherry blossoms along with Busan’s night view. In particular, if you drive when the cherry blossoms are falling, you will marvel at the beautiful scenery of falling petals like rain.  At the end of the road where petals are swirling, you will see the panoramic view of Busan soaking up spring.  Hwangnyeongsan Cherry Blossom Street  Hwangnyeongsan Mountain, one of Busan’s most famous mountains, has a cherry tree habitat formed along the road to the top. In spring, it is an ideal place to enjoy cherry blossoms along with a night view of Busan. In particular, if you drive when the cherry blossoms are falling, you will marvel at the beautiful scenery of falling petals like rain.  At the end of the road where petals are swirling, you will see the panoramic view of Busan soaking up spring.  </ITEMCNTNTS>  <PLACE>CherryBlossomTour</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Sasang-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Teeming with cherry blossoms on every corner of Busan</TITLE>  <MAIN\_PLACE>CherryBlossomTour</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humbL</MAIN\_IMG\_THUMB>  <LAT>35.170444</LAT>  </item>  <item>  <MAIN\_TITLE>유채꽃명소</MAIN\_TITLE>  <CATE2\_NM>Unique Tour</CATE2\_NM>  <LNG>128.97322</LNG>  <MIDDLE\_SIZE\_RM1/>  <UC\_SEQ>30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As blooming canola flowers are at its peak in March and April at mountains and parks, Busan will be covered with a wave of bright yellow petals.  The city takes pride in canola flower fields because they are in harmony with the open oceanic scenery and the largest canola flower park in South Korea. Let's meet all of them in spring.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Daejeo Eco Park&lt;/p&gt;Daejeo Eco Park is the largest canola flower field of 760,000 m2 in South Korea. The park takes pride in its size that is equivalent to 63 football stadiums, and it is close to downtown areas; that is why it is always crowded with people during the flowering season. In particular, Busan Nakdong River Yucahe (Canola) Flower Festival takes place in April, as it offers various spectacles, including an unusual opening ceremonies, group wedding ceremonies, and music performances.  Free bicycle rentals are available at Daejeo Eco Park, so you can bike along the paths of the field while appreciating its beauty. The park is also a well-known spot for photography lovers in Busan. You can even hear the sound of the cameras’ shutters as people take pictures of the beautiful views on every corner of the canola flower field.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Samnak Eco Park&lt;/p&gt;Samnak Eco Park is a city park located on the riverside of the Nakdonggang River in Samnak-dong, Sasang-gu, Busan. It is famous for the cherry blossom tunnel and the canola flower field, as people can enjoy both in spring.  In early April, tourists from all over the country, including Busan, visit the Samnak Canola Flower Festival. During the festival season, photo zones are set up in places, and diverse street performances are held all over.  Samnak Eco Park is well equipped with various recreational facilities such as bicycle paths, walking trails, auto campgrounds, and the water sports town. Why not enjoy leisure activities during the festival period?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Oncheoncheon Park&lt;/p&gt;Located in Dongnae-gu, Busan, Oncheoncheon Park has an ecological stream that runs through the heart of the city.  In spring, its prominent trails teem with cherry blossoms, canola flowers, and Rhododendron indicum are in full bloom. In particular, you shouldn’t miss the scenery of colorful buds reflecting in the water.  Another best is viewing canola flowers during the night. What makes the nighttime in Busan more gorgeous is the surreal beauty of canola flowers and cherry blossoms in harmony with mood lights when viewed from Oncheoncheon Café Stree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Oryukdo Islets&lt;/p&gt;Located in Yongho-dong, Nam-gu, Busan, Oryukdo Sunrise Park is at the foot of the hill behind the Skywalk. The park becomes more beautiful when canola flowers burst into bloom. Every late March to April, the park and its surrounding coastal cliffs are covered with canola flowers in full bloom. The splendid scenery of bright-yellow canola flowers against the blue sea looks like a landscape painting. When the cool sea breeze blows, you can gaze at the view of bright-yellow petals embroidered in the air like a scene from a movie. Do not miss a thrilling experience on Oryukdo Skywalk, as you look down at the magnificent view of the sea below the transparent glass bridge on the coastal cliff.  When you think of spring, cherry blossoms ar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Head out to Korea’s largest canola flower fields that await you in Busan.  Once you follow the canola flower attractions in Busan, you can also appreciate cherry blossoms as well. This is a way of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Let us feel the true spring of Busan following the refreshing scent of canola flowers.  </ITEMCNTNTS>  <PLACE>Canola flower park </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Gangseo-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Canola flower attractions in Busan at the peak of yellow flowers</TITLE>  <MAIN\_PLACE>Canola flower park </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9906</LAT>  </item>  <item>  <MAIN\_TITLE>무장애여행</MAIN\_TITLE>  <CATE2\_NM>Unique Tour</CATE2\_NM>  <LNG>129.01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0 medium"&gt;Route 1 : Haeundae Station (Busan Metro) − Aquarium − Dongbaek Park Coastal Trail/Nurimaru APEC House − The bay 101&lt;/p&gt;  The Haeundae Station of the Busan Metro provides elevators, ramps, and a space for charging electric wheelchairs. Once on the ground, walk along Gunamro, where braille blocks are installed. You cannot miss Busan Aquarium equipped with an audio guide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Dongbaek Park Coastal Trail throughout the park is wheelchair-friendly. Wheelchair rental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at Nurimaru APEC House. You can experience healing forests while strolling on the beautiful trail. Most of all, you can appreciate views of the mountains, the sea, and Gwangandaegyo Bridge all at once.  Head out to The bay 101 located at the entrance of Dongbaekseom Island, where you can enjoy a meal or drink a cup of tea while gazing at the gorgeous night view. It also provides parking spaces, restrooms, and eleva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t;p class="font-size20 medium"&gt;Route 2 : Songdo Beach, Skywalk, Cable Car − Amnam Park Observatory&lt;/p&gt;  Songdo Beach has a wheelchair accessible entrance with a gentle slope. Songdo Beach Skywalk, on the other hand, is Korea’s longest and curved sea overpath, which also has easily accessibl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lectric wheelchairs are not allowed on the Songdo marine cable car for safety reasons; that is why it is recommended to change to a general wheelchair available on the spot. You can also enjoy the panoramic view of the sea at Sky Park Observatory (Amnam Park stop), which is equipped with accessible restrooms and other subsidiary facilities.  Amnam Park is also one of the must-sees in Songdo. Its wheelchair-accessible trail is where you can enjoy the cool sea breeze and coastal scenery together.  &lt;p class="font-size20 medium"&gt;Route 3 : Songjeong Beach − Fisheries Science Museum − Orangdae Park − Daebyeonhang Port − Jukseong Catholic Church&lt;/p&gt;  The deck-type trail along the white sandy beach of Songjeong Beach is wheelchair-friendly and, at the same time, provides accessible restrooms.  The Fisheries Science Museum has a nice open-air observatory and a parking space and restroo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dmission is free of charge for the exhibition hall.  Orangdae Park, the perfect place for enjoying the sunrise, is famous for its wheelchair-accessible trail located in front of the beach. Near the park, Daebyeon Port, a small fishing village with a beautiful lighthouse, is well known for anchovy, generally called Gijang Anchovy.  Jukseong Catholic Church, which has become famous as a filming location for dramas, takes pride in its picturesque landscape together with the view of a sea and the cathedral building. It is also wheelchair-friendly but does not have sufficient parking space.  &lt;p class="font-size20 medium"&gt;Route 4 : Yeongdodaegyo Bridge − Kangkangee Arts Village − Jeoryeong Coastal Trail − Taejongdae Recreation Area&lt;/p&gt;  Yeongdodaegyo Bridge is opened at 2 p.m. every day, and it is also wheelchair-friendly. However, when the bridge is crowded, people would not be able to see the spectacle.  Kangkangee Arts Village in Daepyeong-dong used to have a cluster of shipyards. Today, it offers visitors the excitement of finding hidden works of art while quietly exploring the village. Because there are several dockyards and service companies in operation, it is recommended to visit the place on weekends or through the tour program.  Jeoryeong Coastal Trail allows you to meet the nearest oceanic view of Yeongdo. It also provides relatively easy accessible routes for people who use wheelchairs, or parking spaces and restroo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walk from the entrance to Huin-yeoul Coastal Tunnel.  Danubi Train is available in Taejongdae Park, which you can use to explore the entire recreation area. Wheelchair rental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Come and enjoy the grotesque rocks and vast blue sea of Taejongdae Park.  </ITEMCNTNTS>  <PLACE>Barrier-Free Tour </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Haeundae-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Barrier-free tourist spots in Busan that promote fair and accessible tourism</TITLE>  <MAIN\_PLACE>Barrier-Free Tour </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7614</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Scheduled Trip</CATE2\_NM>  <LNG>129.08714</LNG>  <MIDDLE\_SIZE\_RM1/>  <UC\_SEQ>31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The old Busan ocean, the place embracing Busan’s history, and the ocean opening a new chapter of Busan.  One-day itinerary across Busan from east to west to enjoy Busan’s sea with three different characteristics.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Recommended itinerary&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Taejongdae Park - Huinnyeoul Culture Village - Gukje Market - Yongdusan Park - Gwangalli Beach / Gwangandaegyo Bridge - Haeundae Beach - Dongbaek Coastal Trail &lt;/p&gt;  From the west side of Yeongdo, the best starting point is the Taejongdae Park located at the end of the island.  On a clear day, even the Tsushima Island is visible at a distance. Moreover, you could enjoy the ocean wave breaking into a white foam around the cliff, presenting a magnificent view for all the seasons of the year. You can take the Danubi Train, a convenient way to witness the entirety of Taejongdae Park. Meanwhile, in the early summer, the hydrangea garden will greet you.  The Huinnyeoul Culture Village was first built by refugees using boards on the edge of a seashore cliff. You can walk on the beautiful trail along with the seaside under the steep cliffs. In this village, there are several areas for simple and fun activities, such as wall painting, small and cozy cafés, photo studios, etc. Moreover, the village is famous as a filming location where you can see a long queue of tourists taking pictures.  The Huinnyeoul Culture Village retains the traces of the pain from the refugee time, and it appeared in the background of a “Gukje Market-themed” movie. This village is a great place to enjoy various dishes, which will definitely appease your hunger. Here, you can pause and take a break as well as spend some time roaming around the market and buying cheap used goods.  Yongdusan Park is located 10 minutes from the Gukje Market. At the center of the park, Busan Tower, a landmark of Busan, stands high. Upon reaching the observatory, you can ride in the ships traveling over the ocean, which will allow you to witness a magnificent view and feel the real energy of Busan.  On the east, you can capture the breathtaking scenery of Oryukdo Islets, where the East Sea and the South Sea of Korea meets. Hanging over the coastal cliffs soaring to the sky, the Skywalk, a glass bridge, will give you an exciting experience. This place is also popular for its sunrise, but you are advised to come toward the evening and admire the sunset over Busan’s beautiful ocean.  Afterward, you can visit the Gwangalli Beach, where you will be amazed by the night view of the Gwangandaegyo Bridge glistening like a diamond. Every night, this bridge holds spectacular shows with exterior lighting of over 100,000 colors, which seem to go in harmony with the tune of the waves.  Haeundae Beach is located very near to Gwangalli Beach, but these two present a different vibe. Walking through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you may not resist the food stalls lined up in a row behind the beach as they offer Busan’s true taste from their local food, traditional Korean food, late-night stacks, and fresh seafood.  Dongbaek Coastal Trail extends from the end of Haeundae to encircle the Dongbaekseom Island. This trail contains the Nurimaru, which was used as the APEC Summit in 2005. Walking on the ocean-surrounded trail, you will enjoy the nightscape of Haeundae, which will definitely attract you differently from the way you feel in Gwangalli.  From visiting the Taejongdae Park that has preserved the wonderful nature over a long history of time, the Huinnyeoul Culture Village and the Gukje Market that retained the traces of the refugees’ time, and to the Oryukdo Islets and beaches that greeted you with a new scenery, it will definitely be a long day, but it will truly be worth it as you would get to witness the real Busan!  </ITEMCNTNTS>  <PLACE>Busan One Day Trip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Yeongdo-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A standard day trip across Busan from east to west</TITLE>  <MAIN\_PLACE>Busan One Day Trip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512</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Scheduled Trip</CATE2\_NM>  <LNG>129.097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8</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For those who travel with kids, we recommend that you get an itinerary that would give you not only an educational experience but also an appreciation of nature’s beauty. It is only a day’s trip, but you can get them all.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Recommended Itinerary&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 Oryukdo Islets - Gwangalli Beach / Gwangandaegyo Bridge - Dongbaek Coastal Trail - Haeundae Beach - Dalmajigil Road - Haedong Yonggungsa Temple&lt;/p&gt;  The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which is the world’s only cemetery for the UN forces, is where the soldiers who sacrificed their lives during the Korean War rest. The flags of the coalition partners are flowing over the sculpture, paying respects for the unnamed, sacrificed soldiers and tombstones inscribed with the names of those killed in battle. This naturally makes visitors feel solemn. What is unique in this cemetery is the scene where visitor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re praying.  The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would remind you of the tragedy during the Korean War. Moreover, you will see the heartrending scene of painful forced mobiliz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f Korea in the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2015, the museum was opened in efforts to respect and remember the pains of the sacrificed people in the era.  Not far from the museum, the Oryukdo Islets are located. The name “Oryukdo Islets” originates from its mysterious characteristic, where, depending on the day and the tide, it may appear to have five or six islands. As you walk through the transparent floor of the Skywalk hanging over the end of Sunrise Park, you’ll be thrilled and excited as if you’re flying over the emerald sea.  The Gwangalli Beach is crowded during all the four seasons with tourists full of romance. Unlike the Oryukdo Islets, this place provides a modern atmosphere of the city and beautiful night scenery. The Gwangandaegyo Bridge, boasting its splendor over the blue sea and the people enjoying a leisurely stroll, is a landmark of Busan.  After visiting the Gwangalli Beach, you can go next to the Haeundae Beach. First, you can stop by the Dongbaekseom Island located between Gwangalli and Haeundae and take a walk. Walking down Dongbaek Coastal Trail created in the forest of the island, you can also enjoy the beautiful sea to the fullest.  In the Dalmajigil Road, you will enjoy the scenery of the moon rising over the Haeundae Beach. Created along with the winding forest path leading uphill, this road is famous for its beautiful surroundings and galleries and cafés alongside. In spring, the full-blown cherry blossoms create a tunnel along the road. If you reach the Haewoljeong Pavilion located halfway up the hill, you can take a short rest and feel the blowing sea breeze.  Being the closest to the sea, Haedong Yonggungsa Temple is the most-visited temple by tourists in the country. It creates a unique atmosphere where the waves breaking against the rocks are mysteriously in harmony with the calmness of the temple. You can make a wish with the presence of the emerald sea in the background. Moreover, there is a myth that the temple listens to at least one wish made by the visitors.  It is a meaningful day trip to know more about the long history of Busan and its beautiful sceneries.  If you plan to have a short trip but wish to get a strong impression from Busan, this itinerary is for you.  </ITEMCNTNTS>  <PLACE>Busan One Day Trip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Nam-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A day trip of history and nature with the family </TITLE>  <MAIN\_PLACE>Busan One Day Trip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humbL</MAIN\_IMG\_THUMB>  <LAT>35.128017</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Scheduled Trip</CATE2\_NM>  <LNG>129.11865</LNG>  <MIDDLE\_SIZE\_RM1/>  <UC\_SEQ>319</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If you miss the refreshing feeling brought by the view of the sea, you should take a day trip to fully enjoy the real charm of Busan’s sea!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Recommended Itinerary&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Gwangalli Beach / Gwangandaegyo Bridge - Haeundae Beach - Busan Aquarium - Dalmajigil Road / Moontan Road - Cheongsapo Village - Haedong Yonggungsa Temple&lt;/p&gt;  This place is crowded with tourists in all the four seasons, as it provides a panoramic view of Gwangandaegyo Bridge, one of Busan’s landmarks. People are mesmerized with the Gwangalli Beach that presents different charms between day and night. In particular, on fall nights during Busan Fireworks Festival, the colorful fireworks beautifully light up the night sky over the ocean.  Haeundae Beach is the most popular beach in Korea. It has fine white sand over a large area, attracting not just Busan citizens but also a bunch of tourists. Near the beach, a nice walking path was created for a breezy stroll. In particular, the beautiful Dongbaek coast trail is famous as a place where you can fully enjoy the ocean, the sea breeze, and even the cityscape of Busan. Moreover, Busan Aquarium is one of the must-visit attractions of Busan that is worth recommending as it introduces you to a range of true aquatic life. You can walk through a tunnel tank and feel the excitement while looking up to see sharks and stingrays.  You need to pass through the Dalmajigil Road to get to Songjeong Beach from the Haeundae Beach. In Korean, Dalmajigil means “a road to greet the moon.” Moreover, it provides the most beautiful scenery of the coastal waters of Haeundae under the moonlight. With this romantic atmosphere, it has become lovers’ favorite dating place. Furthermore, the Moontan Road, which is built along the coastline near Dalmajigil Road, is recommended if you want to take a stroll in your usual dress and pair of sneakers. Taking a relaxing walk on the forest path would make you feel the ocean breeze blowing through the fragrance of the pine.  Cheongsapo Village would touch your heart with its calm ocean and silent scenery of harbor. Its name i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legend of “Cheongsa (blue serpent),” but the meaning is now changed to the “blue sandy port.” The lively wall paintings at every corner of the village are eye-catching, and the white and red lighthouses and stepping stone observatory are welcoming. Walking along the railway as if meeting an old friend, you’ll see unknown flowers tremble in the breeze. Recently, small craft workshops and cafés started to open one by one and attracted visitors fascinated with the village’s scenery.  The Haedong Yonggungsa Temple is known as a temple on the ocean, as it is located at the place nearest to the ocean. Everywhere in the temple, the ocean comes into view. After making a wish with your hands pressed in prayer in front of the Seaside Avalokitesvara Bodhisattva, a statue of Buddha, which is located on the top of the temple, you will feel blessed and happy. As the temple is perched on the cliffs, you need to pass the bridge and climb up the stairs to walk around it. Exploring the narrow and winding paths and appreciating the beautiful ocean is truly a worthy experience that you can have only in this temple.  Busan’s ocean with different attractions.  Forest, people, and the beaches; a day trip to Busan to experience all attractions  Let’s meet the true charm of Busan’s ocean, which ceaselessly comes into our minds like waves.  </ITEMCNTNTS>  <PLACE>Busan One Day Trip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Suyeong-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Busan, the must-visit attraction to enjoy the ocean; a day trip to Busan’s ocean</TITLE>  <MAIN\_PLACE>Busan One Day Trip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5311</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Scheduled Trip</CATE2\_NM>  <LNG>129.03648</LNG>  <MIDDLE\_SIZE\_RM1/>  <UC\_SEQ>32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Recommended Itinerary&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First day: Yeongdodaegyo Bridge - Huinnyeoul Culture Village / Jeoryeong Coastal Trail - Taejongdae Park - Gukje Market / Kkangtong Market - Yongdusan Park  Second day: Haeundae Beach - Busan Aquarium - Dongbaek Coastal Trail (Nurimaru APEC House) - Oryukdo Skywalk - Igidae Coastal Trail - Gwangandaegyo Bridge  Your journey starts at the Yeongdodaegyo Bridge, which is a gateway to Yeongdo and became widely known as a bridge where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promised to meet again in 1950. Moreover, it is Korea’s first moveable bridge where you can watch the drawbridge in action at 2:00 p.m.  Huinnyeoul Culture Village and Jeoryeong Coastal Trail below the village are always crowded with people who are looking for spots that appeared in movies, visiting small and cozy cafés, and taking the best shots of the sea.  In Yeongdo, Taejongdae Park is also one of the must-see attractions. If you go up to the observatory on a clear day, even Tsushima Island is visible in the distance. You can take the Danubi Train to relax and witness the entire Taejongdae Park.  The Gukje Market retains the traces of the pains of the Korean War, causing it to be selected as a setting of a movie. In this market, you can buy cheap old items and imported goods, making you forget about the time and your hunger. Then, you can move to the Kkangtong Market, where inexpensive but delicious snacks and food await you.  Yongdusan Park is a 10 min walk from the Gukje Market. The Busan Tower observatory, one of Busan’s landmarks, provides the best view of the sunset. At dusk, you can also enjoy the panorama of Busanhang Port with the glow of the setting sun, Yeongdo, Nampo-dong, and Gukje Market. After sunset, you can end your day with a fantastic night view.  The second day starts at Haeundae, one of the most popular beaches in Korea. As it is the most crowded tourist attraction in the country, there are plenty of accommodation and entertainment options.  The Busan Aquarium, the top of the list of indoor activities, there are diverse marine animals on display. Moreover, you can catch exciting shows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In Dongbaekseom Island, you can find the best coastal walkway alternating between the coast and the forest. You can start from the end of Haeundae Beach, pass through the Nurimaru APEC House, and reach The Bay 101. Alternatively, you can walk down in the opposite direction. Meanwhile, you can enjoy the panoramic view of the expensive coastal waters of Busan and the splendid Gwangandaegyo Bridge on the observatory where a white lighthouse greets you.  The Oryukdo Islets are famous as the perfect place to witness the beautiful sunset and sunrise of Busan. At the Sunrise Park and Skywalk, in particular, you can enjoy the amazing view of Busan’s emerald coastal waters. You can also walk on the transparent glass floor of Skywalk for a joyful and exciting experience.  Extending to the Igidae Coastal Trail, the Oryukdo Islets are a hiking path that rises and falls with a slight slope, which makes it worth trying for the fantastic scenery presented along with the coastline.  You can relax at Gwangalli Beach, which has a lively atmosphere and energy of the youth. Moreover, Gwangandaegyo (Diamond) Bridge, equipped with 100,000 LED lights, beautifully shimmers on the beach at night.  Taking a trip along the coastline of Busan and exploring the diverse facets of Busan will leave you with an absolutely memorable one-day, two-night trip.  </ITEMCNTNTS>  <PLACE>Busan Two Days One Night Itinerary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Yeongdo-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A two-day, one-night tour to fully enjoy all popular attractions along with the coastline of Busan!</TITLE>  <MAIN\_PLACE>Busan Two Days One Night Itinerary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humbL</MAIN\_IMG\_THUMB>  <LAT>35.0955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Scheduled Trip</CATE2\_NM>  <LNG>129.0874</LNG>  <MIDDLE\_SIZE\_RM1/>  <UC\_SEQ>321</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Recommended Itinerary&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First day: Taejongdae Park - Songdo Beach - Gamcheon Culture Village - Gukje Market/Kkangtong Market - Yongdusan Park  Second day: Gwangandaegyo Bridge - Haeundae Beach - Dongbaek Coastal Trail (Nurimaru APEC House) - Dalmaji Pass - Songjeong Beach - Haedong Yonggungsa Temple&lt;/p&gt;  Taejongdae Park is a beautiful place located at the end of the southern part of Yeongdo and harmonized with the dense forest, cliffs, and the ocean. Take the bumpy Danubi Train to roam around the entire park, or ride the maritime cruise to enjoy the rolling waves and watch the park.  Not far from the Yeongdo, you can find Songdo Beach where you can feel the sky, earth, and ocean at once. If you want a thrilling experience, take Songdo Overwater Cable Car to feel as if you’re flying over the ocean or walking on Cloud Trails made with transparent glass.  The Gamcheon Culture Village branded as Korea’s Machu Picchu exhibits unique scenery that embraces the terraced fields for houses and maze-like alleyways. Originally formed as a base for refugees, the village is now a famous place where life and art coexist. Moreover, there are installations and photo zones around the area. You can enjoy the diverse works of local artists or make your own at ateliers with them.  The Gukje Market and the Kkangtong Market, the two most famous markets with a long history in Jung-gu, Busan, are also must-visit attractions.  In the Gukje Market, the gourmand alley and vintage alley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Moreover, cultural performances are held in the 609 zones of the market. Meanwhile, the Kkangtong Market of Bupyeong will introduce you to the true taste of local dishes and offer diverse international food and performances.  In Yongdusan Park, located near the market, you can find the Busan Tower, where you can enjoy the panoramic view of the city. At the observatory of Busan Tower, you can gaze down the city and harbor. Watching Busan’s sunset is a good way to end the day.  The second day of your itinerary would start at Gwangalli Beach. Various cafés lined along the beach are waiting for visitors and people who are enjoying their relaxing time with the view of Gwangandaegyo Bridge. It is the perfect place ‧to go on a romantic date for lovers and capture life’s precious moments with family and friends.  In Busan, Haeundae is ranked top for its most famous beaches with Gwangalli. Haeundae Beach, with its fine, white sand, and Dongbaekseom Island, which is located at the end of the beach, are the two must-visit attractions.  The Dongbaek Coastal Trail, along with its coastline and its harmonized atmosphere between the forest and ocean, is the most beautiful spot for watching the ocean, where the Nurimaru APEC House is located.  On top of Dalmajigil Road, which means “greeting the moon” in Korean, you can find the Haewoljeong Pavilion, famous for its sunset view. The coastal trail extends from the pavilion to the Moontan Road and reaches to Mipo, Cheongsapo, and Gudeokpo villages of the Sampho Coastal Trail.  Songjeong Beach became a mecca of surfing in Korea. It is the ideal place to rest and enjoy leisure at the same time. The beach is busy with all the marine sports shops while also enjoyable because of the view of surfers playing with the waves.  The Haedong Yonggungsa Temple, exhibiting the beautiful scenery over the ocean, is a starting point of the coastal trail that extends to the Daebyeonhang Port. The eastern blue sea could be witnessed everywhere in this temple. Moreover, it is widely believed that if a visitor eagerly prays, at least one of his or her wishes will come true.  \*\*\* The Mipo Railroad along the Sampho Coastal Trail introduced in the original article is closed for construction until June 2020. \*\*\*  </ITEMCNTNTS>  <PLACE>Busan Two Days One Night Itinerary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Yeongdo-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Take a trip to the west and east parts of Busan</TITLE>  <MAIN\_PLACE>Busan Two Days One Night Itinerary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06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Scheduled Trip</CATE2\_NM>  <LNG>129.16003</LNG>  <MIDDLE\_SIZE\_RM1/>  <UC\_SEQ>322</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Recommended Itinerary&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First day: Haeundae Beach - Busan Aquarium - Dongbaekseom Island - Dalmajigil Road - Haedong Yonggungsa Temple - Gijang Jukseong Catholic Church  Second day: Songdo Beach - Amnam Park/Songdo Coast Bollegil Trail - Amisan Observatory - Dadaepo Beach/Sunset Fountain of Dreams&lt;/p&gt;  Haeundae Beach is currently visited by many tourist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Near the beach with soft, grainy white sand, there are plenty of options for entertainment. Every weekend, particularly in the Gunam-ro, small and big events are held to add to the fun.  Busan Aquarium is one of the must-visit attractions near Haeundae Beach as it is the most popular marine-themed park in the Bu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marine tunnel provides a unique experience that resembles walking along the ocean floor, catching visitors’ attention.  Haeundae’s true charm starts from Dongbaekseom Island. Surrounded by a beautiful coastline walkway, the island provides you a unique experience to enjoy the ocean harmonized with the greenery atmosphere, where camellia flowers bloom fully before the arrival of spring.  Upon arriving at Dalmajigil Road, the top of the list of drives in Busan, get off your car and take an easy, breezy stroll on the Moontan Road linked to Dalmajigil Road, to get a refreshing feeling. On the top, the Haewoljeong Pavilion and cafés lined on both sides are waiting for you.  Haedong Yonggungsa Temple is located at the end of the land that meets the ocean. It seems built on the ocean, with unique scenery that ceaselessly attracts tourists throughout the year.  Established as drama sets, Jukseong Catholic Church is a place where the gentle sound of waves, cool breeze, and peaceful atmosphere of the cathedral blend well together. You can enjoy the exotic scenery of the pinnacle and red roof meeting the blue ocean.  Songdo Beach is known as a marine recreation complex for all age groups and seasons. The overwater cable car and suspension bridges offer a surreal scenery of the vast sea as if demonstrating 100 years of Songdo’s fame. The large vessels looking like dots in the distance create a dream-like feeling, and the blue ocean below your feet exhibits stunning scenery that would definitely make you thrilled.  The Songdo Coast Bollegil Trail and Amnam Park provide a unique scenery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Songdo Beach. The wooden deck trail built following the coastline with unique rock formation of fantastic shape stands up toward the sky. Walking on the trail, you can enjoy the picturesque scenery of the southern sea. Meanwhile, in Amnam Park with the dense forest, you can try forest bathing.  The Amisan Observatory meets the mouth of the Nakdonggang River, presenting a beautiful view of the delta and sunset. Many people visit this place a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gifts of nature, such as sand islands, migratory birds, and the glow of the setting sun. The amazing scenery of the field of reeds on the mouth of the Nakdonggang River will surely be remembered for long.  At the end of the day, you can move to Dadaepo Beach, where you can watch the most beautiful glow of the setting sun. The red sun disappears as if sprinkling gold dust over the ocean, which would remind you of a magnificent scene of a movie. Moreover, the Dadaepo Sunset Fountain of Dreams, a large musical fountain equipped with colorful light bulbs, will refresh you.  This itinerary, witnessing the colorful eastern sea and the quiet southern sea, will give you emotions that would linger, making Busan a truly unforgettable place.  </ITEMCNTNTS>  <PLACE>Busan Two Days One Night Itinerary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Haeundae-gu</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Experience the colorful eastern sea and the quiet southern sea on a trip to Busan</TITLE>  <MAIN\_PLACE>Busan Two Days One Night Itinerary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humbL</MAIN\_IMG\_THUMB>  <LAT>35.15841</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70</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3) [부산테마여행 일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3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테마여행 일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테마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일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Ja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66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30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강다니엘코스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影島区 | 구군 |
| CATE2\_NM | 구분 | 100 | 0 | 異色旅行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07886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28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カン・ダニエルツアー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カン・ダニエルツアー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 부제목 |
| MAIN\_PLACE | 주요장소 | 300 | 0 | カン・ダニエルツアー | 주요장소 |
| ADDR1 | 주소 | 200 | 0 |  | 주소 |
| ADDR2 | 주소 기타 | 200 | 0 |  | 주소 기타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200 | 0 |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PRODUCE 101』シーズン2を通じてデビューしたアーティスト、カン・ダニエル。  彼が生まれ育った故郷、釜山に、世界中から彼のファンが押し寄せている。  釜山がカン・ダニエルのファンたちの旅行先として改めて注目されている。  カン・ダニエルとゆかりのある場所は、すでに「聖地」として有名になっている。  釜山・影島出身のカン・ダニエルの母校から、釜山の有名な観光スポットやグルメまで、  「追っかけ」と観光を同時に満喫できる、カン・ダニエルコースを紹介する。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カン・ダニエルコース&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影島大橋 - 新仙中学校 - タルトゥネ - ヒンヨウル文化村 - 太宗台&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島大橋&lt;/p&gt;最初のスポットは、韓国唯一の可動橋である影島大橋だ。「影島旅行の始まりは影島大橋」と言われるほど、釜山市民にとって象徴的な場所。カン・ダニエルも、家族や友人たちとここを訪れたことがあるはずだ。昔から影島と陸地を結んでいた影島大橋では、毎日午後2時から15分間橋の可動イベントが行われる。毎日この時間になると、空に向かって跳ね上がる影島大橋を見るために大勢の人々が集まってくる。南浦洞側がオススメのビュースポット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新仙中学校&lt;/p&gt;影島に渡ったら、バスに乗って新仙中学校に行ってみよう。カン・ダニエルが3年間中学生時代を過ごした母校。毎朝歩いたはずの学校前の通り、校庭、実際に使ったかもしれない机や椅子まで。ダニエルの中学生時代を想像するだけで、心が躍るファンもいるはずだ。学校からは、青い海の見える風景が一望できる。実際に生徒たちが勉強しているので、校内では静かに見学しよう。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サバの刺身専門店&lt;/p&gt;新仙中学校を訪れたら、そのすぐ下にあるサバのお刺身のお店にも行ってみよう。カン・ダニエルが母校の先生と初めてお酒を飲んだお店だそう。  このお店のサバの酢の物と魚介を使った料理は絶品。こじんまりとしているが、ぬくもりが感じられる昔ながらの雰囲気のお店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ヒンヨウル文化村&lt;/p&gt;影島ヒンヨウル文化村もオススメのスポット。地元のアーティストと住民たちが協力して、古い街並みを一変させたこの町は、「韓国のサントリーニ」とも呼ばれている。きれいな壁画や広い海が見える風景は絶好のフォトスポット。村全体が海に面しており、狭い路地を歩いて行くと、きっとのどかな漁村の風景に心を奪われるはず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太宗台&lt;/p&gt;太宗台は、かつてより影島を代表する行楽地だった。地元が影島の人は、幼少時代に遠足で太宗台に行ったことがあるはず。きっと、カン・ダニエルも来たことがあるはずだ。広い海と奇岩怪石の神秘が観られる太宗台だが、歩いて巡るには1時間以上かかる。歩くのに疲れたら、「タヌビ列車」を利用する方法もある。  影島大橋からスタートして、太宗台を巡るカン・ダニエルコース。子どもの頃、カン・ダニエルが歌手になる夢を抱いて歩いたはずの路地から、影島を代表する名所までを網羅している。影島には、じっくり1日見て回る価値がある多彩な観光スポットがある。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Ja?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강다니엘코스</MAIN\_TITLE>  <CATE2\_NM>異色旅行</CATE2\_NM>  <LNG>129.04428</LNG>  <MIDDLE\_SIZE\_RM1/>  <UC\_SEQ>305</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PRODUCE 101』シーズン2を通じてデビューしたアーティスト、カン・ダニエル。  彼が生まれ育った故郷、釜山に、世界中から彼のファンが押し寄せている。  釜山がカン・ダニエルのファンたちの旅行先として改めて注目されている。  カン・ダニエルとゆかりのある場所は、すでに「聖地」として有名になっている。  釜山・影島出身のカン・ダニエルの母校から、釜山の有名な観光スポットやグルメまで、  「追っかけ」と観光を同時に満喫できる、カン・ダニエルコースを紹介する。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カン・ダニエルコース&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影島大橋 - 新仙中学校 - タルトゥネ - ヒンヨウル文化村 - 太宗台&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島大橋&lt;/p&gt;最初のスポットは、韓国唯一の可動橋である影島大橋だ。「影島旅行の始まりは影島大橋」と言われるほど、釜山市民にとって象徴的な場所。カン・ダニエルも、家族や友人たちとここを訪れたことがあるはずだ。昔から影島と陸地を結んでいた影島大橋では、毎日午後2時から15分間橋の可動イベントが行われる。毎日この時間になると、空に向かって跳ね上がる影島大橋を見るために大勢の人々が集まってくる。南浦洞側がオススメのビュースポット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新仙中学校&lt;/p&gt;影島に渡ったら、バスに乗って新仙中学校に行ってみよう。カン・ダニエルが3年間中学生時代を過ごした母校。毎朝歩いたはずの学校前の通り、校庭、実際に使ったかもしれない机や椅子まで。ダニエルの中学生時代を想像するだけで、心が躍るファンもいるはずだ。学校からは、青い海の見える風景が一望できる。実際に生徒たちが勉強しているので、校内では静かに見学しよう。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サバの刺身専門店&lt;/p&gt;新仙中学校を訪れたら、そのすぐ下にあるサバのお刺身のお店にも行ってみよう。カン・ダニエルが母校の先生と初めてお酒を飲んだお店だそう。  このお店のサバの酢の物と魚介を使った料理は絶品。こじんまりとしているが、ぬくもりが感じられる昔ながらの雰囲気のお店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ヒンヨウル文化村&lt;/p&gt;影島ヒンヨウル文化村もオススメのスポット。地元のアーティストと住民たちが協力して、古い街並みを一変させたこの町は、「韓国のサントリーニ」とも呼ばれている。きれいな壁画や広い海が見える風景は絶好のフォトスポット。村全体が海に面しており、狭い路地を歩いて行くと、きっとのどかな漁村の風景に心を奪われるはず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太宗台&lt;/p&gt;太宗台は、かつてより影島を代表する行楽地だった。地元が影島の人は、幼少時代に遠足で太宗台に行ったことがあるはず。きっと、カン・ダニエルも来たことがあるはずだ。広い海と奇岩怪石の神秘が観られる太宗台だが、歩いて巡るには1時間以上かかる。歩くのに疲れたら、「タヌビ列車」を利用する方法もある。  影島大橋からスタートして、太宗台を巡るカン・ダニエルコース。子どもの頃、カン・ダニエルが歌手になる夢を抱いて歩いたはずの路地から、影島を代表する名所までを網羅している。影島には、じっくり1日見て回る価値がある多彩な観光スポットがある。  </ITEMCNTNTS>  <PLACE>カン・ダニエルツアー</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カン・ダニエルツアー</TITLE>  <MAIN\_PLACE>カン・ダニエルツアー</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65</LAT>  </item>  <item>  <MAIN\_TITLE>부산벚꽃투어</MAIN\_TITLE>  <CATE2\_NM>異色旅行</CATE2\_NM>  <LNG>128.97269</LNG>  <MIDDLE\_SIZE\_RM1/>  <UC\_SEQ>306</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済州島を除けば、韓国で桜が一番早く咲く場所。  都市のあちこちで、あるいは都市をしばらく離れて  山で、川で、海で桜を見ることができる場所。  そんな、釜山の春を紹介しよう。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大渚エコパーク&lt;/p&gt;大渚エコパークには、韓国最大規模の菜の花畑が広がる。様々なスポーツ施設が整備されていて、レジャーと休息を同時に楽しむことができる。菜の花の季節が終わる頃に桜が咲き始め、ピンク色と黄色の波が同時に美しい景色を演出する。3月末になると江西洛東江30里一帯では桜祭りが開かれ、洛東江の川辺は白い桜に覆われて春のピークに向かっていく。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三楽エコパーク&lt;/p&gt;三楽エコパークは渡り鳥の飛来地としても有名で、野花の花畑やサイクリングロード、散策コース、オートキャンプ場などがあり、多彩なアウトドア活動ができる。特に春には洛東堤防に植えられた3.000本以上の桜が白い花のトンネルを作る。夜になってライトアップされると、ロマンチックな雰囲気は最高潮に。釜山でも最高の桜の名所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ほど。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麦島エコパーク&lt;/p&gt;麦島エコパークは冬の渡り鳥の飛来地で、探訪路や湿地デッキ、蓮畑、水生植物園、スポーツ施設などが整備されている市民の憩いの場。ここは、釜山の桜の名所の中でも比較的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ため、ゆっくり春を満喫することができる。露店がないため、静かな雰囲気の中で桜を楽しみたい人に最適の場所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海雲台タルマジキル&lt;/p&gt;釜山の人気ドライブコースである海雲台タルマジキルは、丘の上にあるカフェ通りとともに、カップルに人気のあるデートコースだ。特に、桜が満開に咲く日の夜に満月まで出たら、月の光と桜の幻想的な風景が楽しめる。ゆっくり坂道を歩きながら、ますます華やかさを増す桜の群舞を月光の下で観賞でき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南川洞桜通り&lt;/p&gt;釜山の代表的な桜の群落地である南川洞桜通りは、外国人観光客もたくさん訪れるスポット。三益ビーチアパートから広安里の海辺につながる通りは、ゆったりと桜を観賞できる隠れた名所。春になると、アパート団地の間の道路をドライブしたり、桜の下で思い出を残す人々を見かけることができる。住民が暮らしているので、桜のシーズンには大声で騒がないように注意しよう。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東大新洞桜通り&lt;/p&gt;地元住民もよく知らない桜の名所はまだまだある。東大新洞の三益アパートにある桜のトンネルだ。  住宅やアパート団地の間で、毎年春になるとピンク色の桜が壮観を演出する。まだ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ため、賑やかな有名な桜道より静か春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満開の桜と街灯の光の調和が魅力的だ。仕事帰りに立ち寄って春を満喫でき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温泉川カフェ通り&lt;/p&gt;温泉川カフェ通りには新しい雰囲気のカフェがあり、一年中若者がたくさん訪れる場所。ここが最も賑わう時期は、何といっても桜の季節。日中は明るいピンク色の桜が作り出す魅惑的な風景を、夜には街灯の光に照らされた桜の饗宴を楽しめ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荒嶺山桜道&lt;/p&gt;釜山の代表的な山である荒嶺山には、山頂に登る道に沿って桜の群落が形成されている。春になると、釜山市内の夜景と一緒に桜を観賞できる。特に桜の花びらが落ちる時期に車で道路を走ると、花びらが雨のように降り注ぐ美しい光景を満喫できる。  花びらが舞う道路の先には、春に酔いしれる釜山を一望できる。  荒嶺山桜道  釜山の代表的な山とされる荒嶺山には、山頂への道に沿って桜の群落が形成されている。春になると釜山市内の夜景ととも桜を鑑賞できる。特に桜の花びらが落ちる時期に車で道路を走ると、花びらが雨のように降り注ぐ美しい景色を満喫できる。  花びらの舞う道路の先では、春に酔った釜山を一望できる。  </ITEMCNTNTS>  <PLACE>桜の名所</PLACE>  <SUBTITLE>釜山のあちこちに咲く桜</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沙上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桜の名所</TITLE>  <MAIN\_PLACE>桜の名所</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humbL</MAIN\_IMG\_THUMB>  <LAT>35.170444</LAT>  </item>  <item>  <MAIN\_TITLE>유채꽃명소</MAIN\_TITLE>  <CATE2\_NM>異色旅行</CATE2\_NM>  <LNG>128.97322</LNG>  <MIDDLE\_SIZE\_RM1/>  <UC\_SEQ>30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3月と4月、釜山は黄色に染まる。釜山の山や公園で菜の花が満開を迎えるためだ。  広い海と菜の花畑、韓国最大の規模を誇る菜の花公園など、すべて釜山の春に満喫できる観光スポット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大渚エコパーク&lt;/p&gt;大渚エコパークは、韓国で最も広い76万㎡の菜の花畑だ。なんとサッカー場63個分の規模を誇るここは、都心に近いため菜の花シーズンになると常に賑わいを見せる。特に、毎年4月には「釜山洛東江菜の花祭り」が開かれる場所で、ユニークな開幕式から合同結婚式、音楽公演まで様々な見どころを提供する。  大渚エコパークでは無料でレンタサイクルが利用できるので、広い菜の花畑でサイクリングが楽しめる。またここは釜山地域の写真マニアが集まるフォトスポットとしても有名で、広い菜の花畑のあちこちで聞こえるシャッター音が耳をくすぐ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三楽エコパーク&lt;/p&gt;三楽エコパークは沙上区三楽洞の洛東江辺に位置する市民公園だ。毎年春になると、洛東江を挟んで広がる桜のトンネルと菜の花畑を同時に楽しめる場所として有名だ。  4月上旬には「三楽菜の花祭り」が開かれ、釜山はもちろん全国から行楽客が集まる。祭りのシーズンになるとあちこちにフォトゾーンが設けられ、様々なストリートパフォーマンスなどが行われる。  三楽エコパークには自転車専用道路と散策コース、オートキャンプ場、水上レジャースポーツタウンなど各種レジャー施設が備わっている。祭りの期間を活用し、レジャーを楽しんでみるのもいいだろう。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温泉川市民公園&lt;/p&gt;釜山東莱区にある温泉川市民公園は、都心の真ん中を流れる生態河川が保存されている空間である。  春には桜、菜の花、サツキが満開を迎えて美しい散策路を演出する。特に色とりどりのつぼみが川に映る光景は、温泉川市民公園最大の見どころである。  温泉川市民公園のもう一つの見どころは、夜に楽しむ菜の花の風景である。カフェ通りから眺める菜の花と桜が照明と調和する幻想的な美しい光景は、釜山の夜をより美しく演出す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五六島&lt;/p&gt;釜山南区龍湖洞にある五六島ヘマジ（日の出）公園は、スカイウォークの裏手の山裾に位置している。  この公園が特に美しくなる時期は菜の花シーズン。毎年3月末〜4月になると、公園を取り囲む海岸絶壁と公園全体を覆う菜の花が満開を迎える。  咲き乱れる黄色い菜の花と青い海が調和した風景は、まるで一枚の風景画のよう。爽快な海風が吹くと、黄色い花びらが舞いちるドラマチックな風景が楽しめる。  海岸絶壁の上で、透明なガラス張りの橋の上から海の絶景を楽しめるスカイウォークもオススメだ。  春と言えば桜を思い浮かべる人が多いが、韓国最大の菜の花畑が釜山にあること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  釜山のあちこちにある菜の花スポットは桜も同時に楽しめる場合も多いので、春を思いっきり満喫してみよう。  爽やかな菜の花の香りとともに、釜山の春を楽しんでみよう。  </ITEMCNTNTS>  <PLACE>釜山の菜の花スポット</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江西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の菜の花スポット</TITLE>  <MAIN\_PLACE>釜山の菜の花スポット</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9906</LAT>  </item>  <item>  <MAIN\_TITLE>무장애여행</MAIN\_TITLE>  <CATE2\_NM>異色旅行</CATE2\_NM>  <LNG>129.01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0 medium"&gt;コース1 : 都市鉄道海雲台駅 - アクアリウム - 冬柏公園海岸散策路/ヌリマルAPECハウス - ザ・ベイ101&lt;/p&gt;  都市鉄道海雲台駅の構内にはエレベーター、スロープ、電動車いす充電スペースが設けられている。地上に上がると、点字ブロックが設置されている亀南路（クナムロ）を歩き、視覚障害者向けの音声ガイドがあるアクアリウムに移動できる。  冬柏公園海岸散策路は、公園全体を車いすで自由に行き来できる場所。ヌリマルAPECハウスでは車いすの無料レンタルができる。美しい散策路のあちこちで森林浴が楽しめるほか、山や海、広安大橋を一望できる風景も満喫できる。  冬柏島の入り口にあるザ・ベイ101で夜景を楽しみながら食事やお茶が味わえる。ここには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と多機能トイレ、エレベーターが設置されている。  &lt;p class="font-size20 medium"&gt;コース2 : 松島海水浴場、スカイウォーク、ロープウェイ - 岩南公園展望台&lt;/p&gt;  松島海水浴場の入口には、傾斜の緩やかな車いすスロープが設置されている。海の上に設置された韓国の散策路の中で最も長いスカイウォークも、車いすで出入りしやすい。  松島海上ロープウェイの場合、電動車いすは安全上の問題から使用できないが、現地にある一般の車いすを利用してロープウェイに搭乗できる。岩南公園乗り場のスカイパーク展望台から海の景色を一望できるほか、展望台の中には多機能トイレや様々な施設が完備されている。  松島岩南公園でも車いすで散策路を利用できる。爽やかな海風と海岸絶景を満喫してみよう。  &lt;p class="font-size20 medium"&gt;コース3 : 松亭海水浴場 - 水産科学館 - 五郎台公園 - 大辺港 - 竹城聖堂&lt;/p&gt;  松亭海水浴場の砂浜に設置されたデッキ型散策路は車いすで移動しやすく、散策路の途中には多機能トイレがある。  美しい屋外展望台がある国立水産科学館にも多機能トイレと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が備えられており、展示館は無料で入場できる。  日の出スポットである五郎台公園は、海岸のすぐ目の前にある車いすが利用できる散策路で有名。五郎台の近くにある大辺港は機張のカタクチイワシで有名な場所で、美しい灯台が見える小さな漁村だ。  ドラマ撮影で有名になった竹城聖堂は、海の景色と建物が調和した絵のような風景で人気。車いすの利用はできるが、駐車スペースは限られている。  &lt;p class="font-size20 medium"&gt;コース4 : 影島大橋 - カンカンイ村 - 絶影海岸散策路 - 太宗台遊園地&lt;/p&gt;  毎日午後2時に橋の可動イベントが行われる影島大橋。車いすでの利用はできるが、多くの人が押し寄せるとスペースが十分になくなる場合もある。  修理造船所が集まっていた大平洞のカンカンイ村は、静かに村を巡りながら隠れた芸術作品が見つけられる場所。ただ、今でも町のあちこちで船舶修理所や工場などが営業中なので、週末や統合ツアープログラムを利用して訪問すると良い。  絶影海岸散策路は入口からヒンヨウルトンネルまで車いすでも移動しやすい。影島の海が最も近くで見られるコースだ。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と多機能トイレがある。  太宗台ではタヌビ列車を利用して遊園地全体を楽しめるほか、車いすのレンタルも可能。太宗台の奇岩怪石と青い海を満喫できる。  </ITEMCNTNTS>  <PLACE>バリアフリー旅行 </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海雲台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バリアフリー旅行 </TITLE>  <MAIN\_PLACE>バリアフリー旅行 </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7614</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コースツアー</CATE2\_NM>  <LNG>129.08714</LNG>  <MIDDLE\_SIZE\_RM1/>  <UC\_SEQ>31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釜山のかつての海、釜山の歴史をたたえる場所、そして、釜山の新しい海。  釜山の三つの海を巡って東西を横切る日帰りコースだ。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オススメコース&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太宗台 - ヒンヨウル文化村 - 国際市場 - 龍頭山公園 - 五六島 - 広安里海水浴場/広安大橋 - 海雲台海水浴場 - 冬柏海岸散策路&lt;/p&gt;  西の影島の海からスタートする。影島の端に位置する太宗台から旅を始めよう。  天気が良い日には対馬まで望め、いつ行っても美しい奇岩絶壁にぶつかって砕ける白い波を観賞できる。タヌビ列車を利用すれば、より快適に太宗台全体を観光できる。初夏なら、アジサイ畑も必見だ。  避難民が影島の崖にバラックを建てて住み着いたところから始まったというヒンヨウル文化村。崖の下の海岸沿いには、素敵な散策路が整備されている。村のあちこちに描かれた壁画、こじんまりしたカフェ、写真館などのポイントを巡る観光客が多い。映画のロケ地としても有名なヒンヨウル文化村で、最高の記念写真を残してみよう。  市場を舞台にした映画があるほど避難民の哀歓が色濃く残る国際市場は、おいしいグルメも盛りだくさん。古着も安く購入できるので、しばらく見物してはどうだろう。  国際市場から歩いて10分のところに龍頭山公園がある。公園の真ん中には、釜山のランドマークである釜山タワーがそびえ立つ。展望台に登ると海の上を行き来する船が一望でき、ダイナミックな釜山のエネルギー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  南海と東海が出会う五六島の風景を見に、今度は東に向かおう。高い崖の上に透明なガラスのスカイウォークがあり、スリル満点の体験ができる五六島は、日の出とサンセットの名所としても有名。夕暮れ時に立ち寄って、美しい釜山の海の夕日を楽しんでもいいだろう。  日が暮れたら、広安里海水浴場に行ってみよう。広安大橋の素適な夜景がダイヤモンドのように輝いている。毎晩10万個以上の光をまとい刻々と色を変える広安大橋は、打ち寄せる波の音に合わせて踊るように華やかなショーを演出する。  広安里の海のすぐお隣りだが、雰囲気が全く違う海雲台海水浴場と海雲台伝統市場。砂浜のそばに立ち並ぶ屋台村にも行ってみよう。粉食、韓国料理、夜食、新鮮なシーフードなど、釜山の味を思いっきり楽しめる。  海雲台の端につながり、冬柏島を取り囲んでいる冬柏海岸散策路。ここには、2005年にAPEC首脳会議の会場として使われた「ヌリマル」がある。海に沿って歩ける散策路からは、広安里とはまた違った魅力の海雲台の夜景を満喫できる。  長い間天恵の自然環境を留めてきた太宗台、避難民の暮らしの面影が残るヒンヨウル文化村と国際市場。新しい風景で旅行者を迎えてくれる五六島と海水浴場。少々忙しい日帰りコースだが、充実した釜山旅行が楽しめるはず。  </ITEMCNTNTS>  <PLACE>日帰りコース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日帰り旅行の定番、東西を横切るコース</TITLE>  <MAIN\_PLACE>日帰りコース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512</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コースツアー</CATE2\_NM>  <LNG>129.097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8</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家族連れの旅行には、教育と自然が同時に楽しめるコースがおすすめ。一日で盛りだくさんの体験ができるので、日帰りとはいってもかなり充実したコースだ。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オススメコース&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国連記念公園 - 国立日帝強制動員歴史館 - 五六島 - 広安里海水浴場/広安大橋 - 冬柏海岸散策路 - 海雲台海水浴場 - タルマジ（月見）キル - 龍宮寺&lt;/p&gt;  世界で唯一の国連軍共同墓地がある国連記念公園には、韓国戦争の際に命を落とした兵士たちが眠っている。名もなき兵士たちを追悼するオブジェや、戦没者の名前が刻まれた記念碑の間に参戦国の国旗がはためき、胸に響いてくるものがある。世界各地から参拝者が訪れる光景は、国連記念公園ならではの風景だ。  国連記念公園は韓国戦争の悲劇を伝える場所で、国立日帝強制動員歴史館は、日帝強占期における強制動員の惨状を伝える場所である。2015年に開館したここは、日帝強占期に犠牲になった人々を追悼し、その悲しみの歴史を忘れないための空間でもある。  歴史館からほど近い場所に五六島がある。満潮の際は6つの島となり、干潮の際は5つの島が顔を出す不思議な島だ。ヘマジ公園の端にあるスカイウォークでは、透明なガラス張りの床の上を歩きながら、まるでエメラルド色の海の上に立っているようなスリルを満喫できる。五六島の神秘的な海岸の絶景は、釜山で楽しめる特別な風景の一つだ。  広安里海水浴場は、一年中旅行客で賑わうスポット。五六島とは違って、洗練された都市の雰囲気と、美しい夜景を同時に楽しむことができる。海岸を散歩する人々や青い海の向こうで威容を誇る広安大橋は、まさに釜山の象徴とも言える風景だ。  海雲台海水浴場も、欠かせないコースの一つ。まずは広安里と海雲台の間にある冬柏島に行って、散策路を歩いてみよう。冬柏島には海岸散策路が整備されており、海を眺めながら森の中を歩くことができる。  タルマジ（月見）キルからは、海雲台海水浴場の上に月が浮かぶ風景を満喫できる。丘に造成されている曲がりくねった美しい散策路、ギャラリーやカフェなど、周辺の美しい景色を満喫できる。春になると、満開を迎えた桜がトンネルを作り出す。中腹にある海月亭で、吹いてくる海風を感じてみよう。  韓国の数々の寺院の中で、一番海に近いため多くの旅行者が訪れる海東龍宮寺。岩にぶつかって砕ける波がお寺の静かな雰囲気と調和し、独特な雰囲気を演出している。エメラルド色の海を眺めながら、願い事をしてみては。海東龍宮寺を訪れると、願い事が一つ必ず叶うという俗説があるからだ。  釜山の歴史と美しい風景を同時に楽しめる充実した日帰りコース。  釜山の魅力を短期間で深く感じたいなら、このコースがオススメだ。  </ITEMCNTNTS>  <PLACE>日帰りコース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南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歴史と自然の日帰りコース</TITLE>  <MAIN\_PLACE>日帰りコース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humbL</MAIN\_IMG\_THUMB>  <LAT>35.128017</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コースツアー</CATE2\_NM>  <LNG>129.11865</LNG>  <MIDDLE\_SIZE\_RM1/>  <UC\_SEQ>319</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ただ眺めているだけでストレスが吹き飛ぶような海の風景。釜山の海の魅力を思いっきり満喫できる日帰りコースを紹介しよう。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オススメコース&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広安里海水浴場/広安大橋 - 海雲台海水浴場 - 釜山アクアリウム - タルマジ（月見）キル /ムンテンロード - 青沙浦 - 龍宮寺&lt;/p&gt;  釜山のランドマークの一つである広安大橋を一望できる広安里海水浴場。一年中観光客で賑わいを見せ、昼と夜でそれぞれ違った魅力が楽しめる。特に釜山花火祭りが開かれる秋の夜には、広安里海水浴場の海が華やかな花火で染まる。  海雲台海水浴場は広くてきれいな砂浜で有名な韓国を代表する海水浴場で、釜山市民よりも観光客で賑わうスポット。海水浴場の周辺には散策コースが整備されており、中でも特に有名な冬柏海岸散策路は、海と風、都市の風景を最も近くから満喫できるコースだ。海雲台のもう一つの見どころである釜山アクアリウムにも行ってみよう。多彩な海洋生物を直接観察できるスポットで、頭上をサメやエイが泳ぐ様子が楽しめる。  海雲台海水浴場から松亭海水浴場に向かうと、タルマジ（月見）キルを通ることになる。月の光が映る海雲台の海の絶景が一番よく見える場所なので、「タルマジ（月見）キル」と名付けられた。カップルのデートコースとしても有名なスポットだ。タルマジ（月見）キルのそばの海岸に整備されているムンテンロードは、環状型の散策路になっていて普段着にスニーカーでも十分に散策を楽しめる。松林の間から海の香りを感じながら、ゆっくり楽しめる散策コースを歩こう。  静かな海とこじんまりした港の風景が楽しめる青沙浦。かつては青蛇の伝説から「青蛇浦」という地名だったそうだ（どちらも「チャンサポ」で発音が同じだ）。路地には躍動感あふれる壁画が描かれていて、白と赤の二本の灯台と、海岸絶壁にあるタリットル展望台が旅人を迎えてくれる。線路沿いには、名もなき花が風に揺れている。最近では小規模の工房やカフェも増えており、青沙浦の風景に魅せられた旅行者たちの憩いの場となっている。  海から最も近い場所に建っていることから「海の上のお寺」と呼ばれる海東龍宮寺。境内のどこからでも海を一望できる。最も高いところに安置されている海水観音大仏に挨拶をして、海に向かって願い事をしてみよう。海岸絶壁にあるため境内に入るためには橋を渡って階段を登らなければならないが、狭く曲がりくねった道を経てやっと出会える海の風景は、海東龍宮寺ならではの魅力ポイントだ。  多彩な色を秘めている釜山の海。  森と人と海の魅力を一日で体験できる釜山の海の日帰りコース。  打ち寄せる波のように、釜山の海の魅力を思いっきり感じてみよう。  </ITEMCNTNTS>  <PLACE>日帰りコース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水営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と言えば海、釜山の海を楽しむ日帰りコース</TITLE>  <MAIN\_PLACE>日帰りコース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5311</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コースツアー</CATE2\_NM>  <LNG>129.03648</LNG>  <MIDDLE\_SIZE\_RM1/>  <UC\_SEQ>32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オススメコース&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1日目：影島大橋 - ヒンヨウル文化村/絶影海岸散策路 - 太宗台 - 国際市場/カントン市場 - 龍頭山公園  2日目：海雲台海水浴場 - アクアリウム - 冬柏海岸散策路（ヌリマルAPECハウス） - 五六島スカイウォーク - 二妓台海岸散策路 - 広安大橋&lt;/p&gt;  影島大橋から旅が始まる。影島の玄関口である影島大橋は、1950年代に起きた韓国戦争で家族と生き別れになった人々が、再び出会う日を約束した有名な橋。韓国初の可動橋で、毎日午後2時に橋が跳ね上がるイベントが行われる。  ヒンヨウル文化村と村の下にある絶影海岸散策路では、映画のロケ地、こじんまりとしたカフェ、海をバックに記念撮影が楽しめる。  影島に来たら、素敵な海岸の絶景を誇る太宗台にも行ってみよう。晴れた日には、展望台から対馬まで見える。タヌビ列車を利用すれば、太宗台エリアをより快適に楽しめる。  国際市場は、映画の舞台になるほど戦争の悲しい歴史が今なお残る場所だ。古着や輸入品などが手頃なお値段で購入できる。お腹がすいたら、近くのカントン市場に足を運んでみよう。味も値段も満足できるおいしいグルメが待っている。  国際市場から徒歩で10分のところに、龍頭山公園がある。釜山のランドマークである釜山タワーの展望台からは、日没の時間になると最高の景色を楽しめる。夕焼けに赤く輝く釜山港、影島、南浦洞、国際市場などのパノラマが一望できる。素敵な夜景を満喫しながら、一日目を締めくくろう。  韓国を代表する海水浴場、海雲台から始まる2日目。韓国を代表する観光地で、たくさんの人々が訪れる場所だけに、周辺には宿泊施設や娯楽施設が集まっている。  釜山を代表するインドアスポットの釜山アクアリウムでは、様々な海洋生物が見られるほか、毎日多彩な水中ショーも楽しめる。  森と海が調和する美しい海岸散策路のある冬柏島。海雲台の端からスタートし、ヌリマルAPECハウスを経てザ・ベイ101に出るコースを歩いても、その逆を辿ってもいい。白い灯台のある展望台からは、広々とした釜山の海と大きな広安大橋が一望できる。  釜山の美しい日の出とサンセットが楽しめる五六島。ヘマジ公園とスカイウォークで見られるエメラルド色の釜山の海が美しい。床が透明なガラスになっているスカイウォークでは、スリル満点の散歩が楽しめる。  五六島は、二妓台海岸散策路とつながっている。坂道の続くトレッキングコースだが、海岸を歩きながら美しい景観を満喫できる。  若者たちの熱気あふれる都心の海、広安里海水浴場でゆっくりひと休み。日が暮れるとライトアップされる「ダイヤモンドブリッジ」広安大橋は、10万個以上のLEDが演出する幻想的な光で広安里の海辺を彩る。  釜山の海岸線をたどる旅。釜山の海の様々な魅力を感じることのできる、充実した1泊2日コースだ。  </ITEMCNTNTS>  <PLACE>釜山1泊2日コース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1泊2日で釜山の海岸線を全て巡ろう </TITLE>  <MAIN\_PLACE>釜山1泊2日コース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humbL</MAIN\_IMG\_THUMB>  <LAT>35.0955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コースツアー</CATE2\_NM>  <LNG>129.0874</LNG>  <MIDDLE\_SIZE\_RM1/>  <UC\_SEQ>321</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オススメコース&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1日目：太宗台 - 松島海水浴場 - 甘川文化村 - 国際市場/カントン市場 - 龍頭山公園  2日目：広安大橋 - 海雲台海水浴場 - 冬柏海岸散策路 /ヌリマルAPECAハウス - タルマジ道 - 松亭 - 海東龍宮寺&lt;/p&gt;  影島の南端に位置する太宗台は、緑豊かな森林と崖、海のある美しいスポット。「タヌビ列車」に乗って太宗台全体を巡っても、海上遊覧船に乗って波を感じながら海から太宗台を眺めてもいい。  影島からそう遠くないところにある松島海水浴場は、空と陸の両方から海を感じられる場所だ。松島海上ロープウェイに乗って海の上の空中散歩を楽しんだり、「クルム散策路」でスリル満点のガラス張りのスカイウォークを歩いて楽しんでもいい。  「韓国のマチュピチュ」と呼ばれる甘川文化村は、階段式の住居や迷路のような路地など、ユニークな景観が楽しめる場所。避難民の生活の場だった村は、今では生活と芸術が共存する名所になっている。オブジェやフォトゾーンなどが村のあちこちにあり、アーティストによる様々な作品を鑑賞したり、アーティストによる工房体験ができる。  中区にある釜山を代表する伝統市場「国際市場」と「カントン市場」も見逃せない。  国際市場にはグルメ横丁や古着屋通りがあり、市場内の「複合文化空間609」では様々な公演も開かれる。グルメで有名な富平カントン市場は、世界のグルメや公演が楽しめる夜市が特徴だ。  市場の近くにある龍頭山公園には、釜山市内を一望できる釜山タワーがある。釜山タワーの展望台からは、市街地や港の景観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日が暮れる釜山の風景を眺めながら、一日の旅程を締めくくろう。  旅の二日目は、広安里から始めよう。広安里の海岸沿いには色とりどりのカフェが並び、ランドマークである広安大橋を眺めながら楽しい時間が過ごせる。家族や友人、恋人と一緒に、ロマンチックな広安里海水浴場で忘れられない思い出を作ろう。  釜山の海といえば広安里と海雲台だ。真っ白で砂の細かい海雲台ビーチとその端にある冬柏島は、絶対見逃せない観光スポットだ。  森と海が調和した冬柏海岸散策路には、海の景色が最も美しくなる所にAPEC首脳会議が開かれたヌリマルAPECハウスがある。  月光を迎える丘「タルマジ」道を上りきると、月見スポットの「海月亭」がある。海月亭から続くムンテンロードの海岸散策路は、三浦海岸道、尾浦と青沙浦、九徳浦につながっている。  韓国でサーフィンのメッカとして人気急上昇中の松亭海水浴場で、休息とレジャーを同時に楽しんでみよう。マリンレジャースポーツ関連の施設がたくさんあり、波に乗るサーファーたちを見ているだけでも楽しい。  海の上の美しい景観を誇る海東龍宮寺は、大辺港まで続く海岸散策路の出発点。境内のどこからでも青い東海が眺められるお寺で、熱心に祈ると願い事が一つ必ず叶うという伝説がある。  \*\*\* 三浦海岸道の「尾浦チョルキル(廃線路)」区間は、工事のため2020年6月まで閉鎖となります。 \*\*\*  </ITEMCNTNTS>  <PLACE>釜山1泊2日コース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西釜山と東釜山を同時に楽しむ</TITLE>  <MAIN\_PLACE>釜山1泊2日コース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06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コースツアー</CATE2\_NM>  <LNG>129.16003</LNG>  <MIDDLE\_SIZE\_RM1/>  <UC\_SEQ>322</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オススメコース&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1日目：海雲台海水浴場 - アクアリウム - 冬柏島 - タルマジ道 - 海東龍宮寺 - 機張竹城聖堂  2日目：松島海水浴場 - 岩南公園/松島海岸ボルレ道 - 峨嵋山展望台 - 多大浦海水浴場/夢の落照噴水&lt;/p&gt;  今や世界中の観光客が足を運ぶ海雲台海水浴場。良質の砂の真白な砂浜と海水浴場の周辺には、様々な見どころがある。週末には、亀南路を中心に多彩なイベントも開催される。  海雲台海水浴場で絶対に見逃せないスポットの一つが、釜山アクアリウムだ。釜山・慶南地域を代表する海洋テーマパークで、海の中を歩いている気分になれるトンネル水槽が有名だ。  海雲台の海の真の魅力は、冬柏島に詰まっている。美しい海岸散策路がある冬柏島は、春が来る前に満開を迎える椿と緑豊かな森林が調和する、独特な海の風景が楽しめるスポットだ。  釜山の有名ドライブコースであるタルマジ道では、車から降りてしばらく歩いてみよう。タルマジ道とつながっているムンテンロードを軽く散策するだけでも、爽快な気分が味わえる。頂上には、月見スポットの「海月亭」や、おしゃれなカフェが並んでいる。  機張の海に面した陸地の端には、海東龍宮寺がある。海の上に建てられ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ほど独特な風景を誇るお寺で、一年中観光客で賑わう場所だ。  ドラマの撮影セットとして建てられた機張竹城聖堂は、穏やかな波と涼しい風、教会の心安らぐ雰囲気が調和する場所だ。尖塔と赤い屋根が、青い海に映えてエキゾチックな風景を演出している。  一年中多様な年齢層の観光客が訪れる複合海洋リゾート地・松島海水浴場は、海上ロープウェイとクルム散策路（スカイウォーク）が最高の海の景色を演出しており、100年の歴史の中でかつての人気を取り戻した。遠くの海のあちこちに浮かぶ大型船舶が幻想的な風景を演出し、目下に広がる青い海のスリル満点の景観も楽しめる。  海岸ボルレ道と岩南公園では、松島海水浴場とはまた違った風景が楽しめる。奇岩怪石が並ぶ海岸線にデッキが整備されている海岸ボルレ道を歩きながら絵のように美しい南海を観賞し、緑豊かな森の道が魅力的な岩南公園では森林浴が楽しめる。  洛東江の河口と三角州の絶景、美しいサンセットが楽しめる峨嵋山展望台。砂の島、渡り鳥、夕陽など天恵の景観を眺めることができるため、たくさんの人々が訪れる。洛東江の河口にある美しい葦畑の風景は、思い出に残る絶景だ。  夕暮れ時には、釜山で夕日が最も美しい多大浦海水浴場に行ってみよう。海に金色の粉を振りまきながら沈んでいく赤い太陽は、映画のワンシーンのように美しい。色とりどりの照明が彩る超大型音楽噴水「多大浦夢の落照噴水」では、エキサイティングな噴水ショーが楽しめる。  華やかな東海と静かな南海を同時に楽しむ今回の旅行コースで、忘れられない釜山旅行を楽しんでみよう。  </ITEMCNTNTS>  <PLACE>釜山1泊2日コース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海雲台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華やかな東海と静かな南海を同時に楽しむ釜山旅行</TITLE>  <MAIN\_PLACE>釜山1泊2日コース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humbL</MAIN\_IMG\_THUMB>  <LAT>35.15841</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66</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4) [부산테마여행 중문 간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4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테마여행 중문 간체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테마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중문 간체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Zhs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68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30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강다니엘코스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影岛区 | 구군 |
| CATE2\_NM | 구분 | 100 | 0 | 特色旅行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07886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28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姜丹尼尔路线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姜丹尼尔路线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 부제목 |
| MAIN\_PLACE | 주요장소 | 300 | 0 | 姜丹尼尔路线 | 주요장소 |
| ADDR1 | 주소 | 200 | 0 |  | 주소 |
| ADDR2 | 주소 기타 | 200 | 0 |  | 주소 기타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200 | 0 |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过《Produce 101》第二季节目出道的歌手——姜丹尼尔。  得益于他的人气，粉丝从世界各地涌来，奔向他所出生并成长的故乡—釜山。  釜山因姜丹尼尔粉丝的“粉丝之旅”而备受关注。  他曾在釜山停留过的各个地方都已成为“朝圣之路”。  釜山影岛出身的姜丹尼尔的母校，以及釜山著名景点和美食店，  下面介绍一下既可以追星，又可以旅游的姜丹尼尔路线。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姜丹尼尔旅游路线&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影岛大桥 - 新仙初中 - 月亮升起 - 白川文化村 - 太宗台&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岛大桥&lt;/p&gt;首先去的地方是韩国唯一的开启桥——影岛大桥。很多人都说影岛旅行就应该从影岛大桥开始，只要是釜山居民就没有人不知道这个场所的象征意义。姜丹尼尔可能也与家人和朋友们来过无数次。从古至今，在连接影岛和陆地的影岛大桥，每天下午2点都会举行15分钟的开启活动。每天这个时段，人们为观看影岛大桥向上开启的特殊场面蜂拥而至。如果想真正仔细观看影岛大桥的开启过程，建议您从南浦洞方向观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新仙初中&lt;/p&gt;如果进入影岛，就乘坐巴士去新仙初中看看吧。这里是姜丹尼尔的母校，是他在影岛度过三年学生时代的地方。从每天早晨上学时走过的学校前面的胡同到运动场，再到留下他痕迹的书桌。相信粉丝们只要想象他的学生时代就会心动不已。从学校俯瞰的蔚蓝大海的风景也是一种赠送。如果想访问学生们学习的学校，那么就要保持肃静。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青花鱼生鱼片餐厅&lt;/p&gt;访问新仙初中后，学校下面的青花鱼生鱼片专门餐厅也是不容错过的地方。因为这是姜丹尼尔第一次与母校老师一起饮酒的地方。  这家餐厅的醋拌青花鱼生鱼片和海鲜菜肴堪称一绝，虽然规模较小，但小巧玲珑且充满风味的餐厅氛围足以勾起昔日情调。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白川文化村&lt;/p&gt;影岛白川文化村也是必游景点。该地区的艺术家和居民齐心协力，重新装修了古老的村庄，此处被称为“韩国的圣托里尼”。美丽的壁画和开阔的海景是留下绝美照片的好地方。整个村子都是以海为邻，沿着狭窄的胡同向前，肯定会被田园诗般的的渔村风景所吸引。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太宗台&lt;/p&gt;太宗台自古以来就是影岛代表性的游园区。在影岛长大的人，学生时代都会去太宗台郊游。姜丹尼尔也一定在学校郊游的日子来太宗台尽情玩耍过。如果想途步游览广阔的大海和奇岩怪石的神秘，太宗台是最好不过的地方，但需要1个小时以上的时间。如果觉得走路不太方便，也可以乘坐低速“DANUBI列车”。  从影岛大桥开始到太宗台的姜丹尼尔旅游路线。孕育姜丹尼尔歌手梦想的胡同以及影岛代表性的名胜。如此看来，影岛拥有可以花一天时间尽情游览的各种美丽风景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Zhs?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강다니엘코스</MAIN\_TITLE>  <CATE2\_NM>特色旅行</CATE2\_NM>  <LNG>129.04428</LNG>  <MIDDLE\_SIZE\_RM1/>  <UC\_SEQ>305</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通过《Produce 101》第二季节目出道的歌手——姜丹尼尔。  得益于他的人气，粉丝从世界各地涌来，奔向他所出生并成长的故乡—釜山。  釜山因姜丹尼尔粉丝的“粉丝之旅”而备受关注。  他曾在釜山停留过的各个地方都已成为“朝圣之路”。  釜山影岛出身的姜丹尼尔的母校，以及釜山著名景点和美食店，  下面介绍一下既可以追星，又可以旅游的姜丹尼尔路线。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姜丹尼尔旅游路线&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影岛大桥 - 新仙初中 - 月亮升起 - 白川文化村 - 太宗台&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岛大桥&lt;/p&gt;首先去的地方是韩国唯一的开启桥——影岛大桥。很多人都说影岛旅行就应该从影岛大桥开始，只要是釜山居民就没有人不知道这个场所的象征意义。姜丹尼尔可能也与家人和朋友们来过无数次。从古至今，在连接影岛和陆地的影岛大桥，每天下午2点都会举行15分钟的开启活动。每天这个时段，人们为观看影岛大桥向上开启的特殊场面蜂拥而至。如果想真正仔细观看影岛大桥的开启过程，建议您从南浦洞方向观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新仙初中&lt;/p&gt;如果进入影岛，就乘坐巴士去新仙初中看看吧。这里是姜丹尼尔的母校，是他在影岛度过三年学生时代的地方。从每天早晨上学时走过的学校前面的胡同到运动场，再到留下他痕迹的书桌。相信粉丝们只要想象他的学生时代就会心动不已。从学校俯瞰的蔚蓝大海的风景也是一种赠送。如果想访问学生们学习的学校，那么就要保持肃静。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青花鱼生鱼片餐厅&lt;/p&gt;访问新仙初中后，学校下面的青花鱼生鱼片专门餐厅也是不容错过的地方。因为这是姜丹尼尔第一次与母校老师一起饮酒的地方。  这家餐厅的醋拌青花鱼生鱼片和海鲜菜肴堪称一绝，虽然规模较小，但小巧玲珑且充满风味的餐厅氛围足以勾起昔日情调。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白川文化村&lt;/p&gt;影岛白川文化村也是必游景点。该地区的艺术家和居民齐心协力，重新装修了古老的村庄，此处被称为“韩国的圣托里尼”。美丽的壁画和开阔的海景是留下绝美照片的好地方。整个村子都是以海为邻，沿着狭窄的胡同向前，肯定会被田园诗般的的渔村风景所吸引。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太宗台&lt;/p&gt;太宗台自古以来就是影岛代表性的游园区。在影岛长大的人，学生时代都会去太宗台郊游。姜丹尼尔也一定在学校郊游的日子来太宗台尽情玩耍过。如果想途步游览广阔的大海和奇岩怪石的神秘，太宗台是最好不过的地方，但需要1个小时以上的时间。如果觉得走路不太方便，也可以乘坐低速“DANUBI列车”。  从影岛大桥开始到太宗台的姜丹尼尔旅游路线。孕育姜丹尼尔歌手梦想的胡同以及影岛代表性的名胜。如此看来，影岛拥有可以花一天时间尽情游览的各种美丽风景。  </ITEMCNTNTS>  <PLACE>姜丹尼尔路线</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岛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姜丹尼尔路线</TITLE>  <MAIN\_PLACE>姜丹尼尔路线</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65</LAT>  </item>  <item>  <MAIN\_TITLE>부산벚꽃투어</MAIN\_TITLE>  <CATE2\_NM>特色旅行</CATE2\_NM>  <LNG>128.97269</LNG>  <MIDDLE\_SIZE\_RM1/>  <UC\_SEQ>306</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这里是在韩国除了济州岛，樱花最先绽放的地方，  暂时离开城市，  伴随山川、河流、大海一起欣赏樱花的地方，  釜山的春天与你共享。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大渚生态公园&lt;/p&gt;大渚生态公园是韩国最大规模的油菜花园。这里有各种体育设施，因此还可以同时享受闲暇时间和休息。在油菜花凋谢之际，樱花绽开花蕾形成嫩粉色和黄色波浪，景象十分壮观。每到3月末，江西洛东江30里一带会如期迎来樱花节，每到这个时候，洛东江边就会出现一片白花花的樱花叶迎接春天的盛况。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三乐生态公园&lt;/p&gt;三乐生态公园以候鸟迁徙地而著称，拥有野花园区、自行车道、散步路、汽车露营场等，在此可以进行各种户外活动。特别是每到春天，种植于洛东堤防的3000多棵樱花树形成白色的花瓣隧道，日落时分灯光一亮，将营造出让人欣喜的浪漫氛围。这就是为什么在选择釜山最佳樱花观赏地时不能排除三乐生态公园的原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麦岛生态公园&lt;/p&gt;麦岛生态公园是冬季鸟类飞来的地方，有探访路、湿地台、荷花园区、水生植物园、体育设施等，一年四季都是市民们喜爱的地方。在釜山的樱花名胜中，这里还没被广为人知，因此可以悠闲地享受春天。因为没有货摊，所以非常适合想在寂静的气氛中赏樱的游客。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海云台迎月路&lt;/p&gt;釜山的人气兜风路线“海云台迎月路”和山坡上的“咖啡街”是恋人们经常去的约会场所。特别是樱花盛开的傍晚，满月时月光和樱花营造出的梦幻氛围令人难以忘怀。边沿着坡路漫步，边在月光下欣赏逐渐绚丽的樱花群舞，可谓一大亮点。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南川洞樱花街&lt;/p&gt;釜山代表性的樱花生态群落——南川洞樱花街是外国游客经常光顾的景点。从三益海滩公寓到广安里海边都是可以悠闲赏樱的不为人知的名胜。每到春天，在小区之间的路边兜风或樱花树下创造回忆的人比比皆是。在樱花季节，考虑到周围的居民，请不要忘记放低音量的“体贴”。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东大新洞樱花街&lt;/p&gt;还有一个连釜山人都很少知道的樱花胜地，那就是东大新洞三益公寓樱花隧道。  每年春天在住宅和公寓园区之间都会盛开粉红色的樱花。由于目前尚未广为人知，因此与繁杂的知名樱花路相比，这里可以让人更安静地享受春天。盛开的樱花和路灯灯光相映成趣，魅力无限，下班路上也可暂时来逛逛，留住春天的美好。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温泉川咖啡街&lt;/p&gt;温泉川咖啡街是充满全新氛围的咖啡馆，是年轻人经常光顾的地方。但是这里最拥挤的时期还属樱花季节。白天，明亮的粉红色樱花在温泉川形成倒影，尽显迷人风景，而夜晚与路灯灯光相容的樱花盛宴又会吸引众人驻足。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荒岭山樱花街&lt;/p&gt;釜山的代表性名山——荒岭山与沿着通往山顶的道路形成了樱花树生态群落。每到春天，是釜山市内观赏夜景和樱花的最佳场所。特别是樱花落地之时，驾车行驶在这条路上就能看到花瓣如雨般飘落的浪漫美景。  在花瓣纷飞的公路尽头，可将陶醉于春天的釜山尽收眼底。  荒岭山樱花街  釜山的代表性名山——荒岭山与沿着通往山顶的道路形成了樱花树群。每到春天，是在釜山市内观赏夜景和樱花的最佳场所。特别是樱花落地之时，驾车行驶在这条路上就能看到花瓣如雨般洒落下来的美景。  在花瓣纷飞的公路尽头，可将陶醉于春天的釜山尽收眼底。  </ITEMCNTNTS>  <PLACE>樱花之旅</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沙上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各处，樱花盛开 </TITLE>  <MAIN\_PLACE>樱花之旅</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humbL</MAIN\_IMG\_THUMB>  <LAT>35.170444</LAT>  </item>  <item>  <MAIN\_TITLE>유채꽃명소</MAIN\_TITLE>  <CATE2\_NM>特色旅行</CATE2\_NM>  <LNG>128.97322</LNG>  <MIDDLE\_SIZE\_RM1/>  <UC\_SEQ>30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3月和4月，整个釜山会被染成黄色。因为釜山的山和公园都会被油菜花装点得异常美丽。  拥有开阔大海风景的油菜花田、韩国最大规模的油菜花公园等都是釜山的春天可以见到的胜地。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大渚生态公园&lt;/p&gt;大渚生态公园是韩国面积最大的76万平方米油菜花园区。这里足足有63个足球场大的规模，而且离市中心很近，每到油菜花季节这里总是人潮涌动。特别是作为每年4月都会举行“釜山洛东江油菜花节”的场所，从特色开幕式到集体婚礼、音乐演出等，为游客们提供了多样的看点。  在大渚生态公园可以免费租赁自行车，在宽阔的油菜花丛中自由穿梭，嘻嘻哈哈地踩着踏板会别有一番情趣。另外这里还以吸引釜山地区摄影爱好者的野外拍摄地而闻名，在广阔的油菜花田中到处都能听到把美丽的风景装入镜头的快门声。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三乐生态公园&lt;/p&gt;三乐生态公园是位于沙上区三乐洞洛东江岸边的市民公园。每年一到春天都可以在这里同时享受洛东江两边的樱花隧道和油菜花田，非常有名。  一般每年4月初会举行“三乐油菜花节”，这时，不光是釜山，就连韩国各地的游客也会蜂拥而至。每到举办庆典的时期，到处都会设置拍照区并举行各种街头演出。  三乐生态公园设有自行车专用车道、散步路线、汽车露营场、水上休闲运动城等，各种休闲设施一应俱全。在庆典期间一起享受休闲活动也是不错的选择。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温泉川市民公园&lt;/p&gt;位于釜山东莱区的温泉川市民公园是横跨城市中心的生态河川。每到一到春天，樱花、油菜花、映山红都会遍地盛开，成为最佳散步路。尤其是各色花蕾在河川形成倒影的场景，是温泉市民公园不可错过的场景。 温泉川市民公园的另一大看点是夜间观赏油菜花。在咖啡街上看到的油菜花、樱花与小夜灯形成和谐的梦幻般美景，让釜山的夜晚变得无比美丽。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五六岛&lt;/p&gt;位于釜山南区龙湖洞的五六岛日出公园位于天空步道后面的山脚下。这个公园最美丽的时期是油菜花花蕾绽放期。每年3月末-4月，围绕公园的海岸悬崖和覆盖整个公园的油菜花就会烂漫盛开。  黄灿灿的油菜花和碧海相映成趣，犹如一幅风景画。凉爽的海风吹起时，就会看到黄色花瓣点缀在空中的梦幻场景。  透过海岸绝壁上透明的玻璃桥扣人心弦地欣赏大海美景的天空步道也是不可错过的景点。  每到春天，虽然最先想到樱花的人很多，但知道釜山有韩国最大规模的油菜花田的人却为数不多。  到釜山各地的油菜胜地去赏花时，很多地方都可以同时观赏到樱花，这不正是好好享受春天一箭双雕的好方法吗？  请跟随清新的油菜花香，来切身感受一下釜山的春天吧。  </ITEMCNTNTS>  <PLACE>油菜花胜地</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江西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油菜花胜地</TITLE>  <MAIN\_PLACE>油菜花胜地</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9906</LAT>  </item>  <item>  <MAIN\_TITLE>무장애여행</MAIN\_TITLE>  <CATE2\_NM>特色旅行</CATE2\_NM>  <LNG>129.01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0 medium"&gt;路线1 : 都市铁路海云台站-水族馆-冬柏公园海岸散步路、APEC世峰楼-The Bay 101&lt;/p&gt;  都市鐵路海雲台站內設有電梯、坡道、電動輪椅充電處。從地下走到地上後，可沿著鋪設盲道磚的龜南路，前往為盲人設有導遊解說器的水族館。  冬柏公園海岸散步路是輪椅可自由通行整個公園的地方。在APEC世峰樓可免費租賃輪椅。在美麗的散步路各處都可享受森林治愈，還可以一覽山川、大海、廣安大橋的風景，是冬柏島的驕傲。  在位於冬柏島入口的The Bay 101可一邊欣賞夜景，一邊享用美食和茶。這裡設有殘疾人專用停車區、殘疾人專用洗手間和電梯。  &lt;p class="font-size20 medium"&gt;路线2 : 松岛海水浴场、天空步道、缆车-岩南公园观景台&lt;/p&gt;  松岛海水浴场入口设有缓慢倾斜的轮椅专用通道。是韩国海上散步路中最长的空中步道，便于游客出入。  因安全问题电动轮椅无法上到松岛海上缆车，因此可换乘现场配备的普通轮椅然后乘坐缆车进行游览。在岩南公园车站的天空花园观景台，可以眺望大海全景，观景台内还设有残疾人专用洗手间等各种便利设施。  松岛岩南公园也是必去的景点，可乘坐轮椅沿着散步路移动，还可以尽情享受凉爽的海风和海岸美景。  &lt;p class="font-size20 medium"&gt;路线3 : 松亭海水浴场-水产科学馆-五郎台公园-大边港-竹城天主教堂&lt;/p&gt;  沿着在松亭海水浴场白沙滩设置的台型散步路便于轮椅移动，散步路中途还设有残疾人专用洗手间。  拥有漂亮室外观景台的国立水产科学馆也设有残疾人专用洗手间和残疾人专用停车区，且展览馆为免费入场。  日出名胜五郎台公园位于海边正前方，是轮椅也可通行的有名的散步路。五郎台附近的大边港因机张鳀鱼而闻名于世，是一座可看到美丽灯塔的小渔村。  因拍摄电视剧而出名的竹城天主教堂以大海景观以及与天主教堂建筑相结合的如画般的风景吸引着人们的目光。虽然轮椅可以通行，但停车位并不充足。  &lt;p class="font-size20 medium"&gt;路线4: 影岛大桥-奚琴村-绝影海岸散步路-太宗台游园区&lt;/p&gt;  每天下午2点，影岛大桥都会举行开启活动，虽然可以乘坐轮椅，但人流较多时，参观的地方可能并不宽裕。  聚集修理造船厂的大平洞奚琴村是静静环顾村庄、寻找隐藏艺术作品的有趣之处。现如今，村子里各处也仍有营业中的船舶修理场和工业公司，因此建议您在周末或利用综合旅游项目来参观。  从绝影海岸散步路入口到白川隧道，用轮椅通行和步行移动都比较容易，是最靠近影岛大海的路线。这里设有残疾人专用停车区和残疾人专用洗手间。  在太宗台可乘坐DANUBI列车游览整个游园区，也可以租赁轮椅。还能看到太宗台的奇岩怪石和碧海。  </ITEMCNTNTS>  <PLACE>无障碍旅游</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海云台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无障碍旅游景点</TITLE>  <MAIN\_PLACE>无障碍旅游</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7614</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不同日程的旅行</CATE2\_NM>  <LNG>129.08714</LNG>  <MIDDLE\_SIZE\_RM1/>  <UC\_SEQ>31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釜山的悠久大海，珍藏釜山历史的景点，釜山的全新海岸。  这里有畅游釜山的三色魅力大海、穿越东西的一日游路线。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荐路线&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太宗台 - 白浅滩文化村 - 国际市场 - 龙头山公园 - 五六岛 - 广安里海水浴场/广安大桥 - 海云台海水浴场 - 冬柏海岸散步路&lt;/p&gt;  从西部影岛的大海出发，位于影岛尽头的太宗台展现无限美好风光。  天气晴朗时可以眺望到对马岛，可一年四季欣赏白色浪花拍打在奇岩绝壁上的壮观场面。乘坐DANUBI列车可以舒适地围绕太宗台兜上一圈，每到初夏，绣球花盛开的景象也令游客陶醉。  避难民在影岛峭壁上搭上木板居住，形成了白浅滩文化村。悬崖峭壁下沿着海岸延伸的散步路让人心旷神怡。村落里有许多壁画和温馨的咖啡馆、照相馆等，很多游客喜欢来这里感受小确幸。因电影拍摄地而闻名的白浅滩文化村，很多游客为了拍照打卡慕名而来，即使排队也是愉快的经历。  国际市场是电影《国际市场》取材拍摄的地方，遗留着避难民悲欢离合的历史。这里到处都有小吃美食，适合填饱饥肠辘辘的肚子。还能购买到物美价廉的二手商品，在这里驻足片刻随便逛逛也是打发时间的不错选择。  从国际市场步行10分钟将到达龙头山公园。公园中央屹立着釜山地标——釜山塔，爬上观景台可以眺望游走在海面上的船只，将釜山的动态活力景象一览无余。  继续向东部移动，可以欣赏南海与东海邂逅的五六岛。搭建在悬崖峭壁上的透明玻璃天空步道带给游客不一样的刺激感受，这里也是观看日出和落日的著名景点。傍晚来访时，釜山大海的美丽日落景象令人心醉。  欣赏完日落后，下一站去往广安里海水浴场。广安大桥的美丽夜景如钻石般璀璨绚丽，每晚10万种以上的色彩变换，像伴随着海浪声音舞动般绚丽多姿，让游客大饱眼福。  毗邻广安里海岸但氛围却截然不同的海云台海水浴场、海云台传统市场以及沙滩后面秩序井然的大排档，这里的美食诱惑让人欲罢不能。小吃、韩餐、夜宵还有新鲜的海鲜，带您尝尽釜山的美味。  冬柏海岸散步路始于海云台的尽头，环绕着冬柏岛。这里是2005年APEC峰会举办会议的世峰楼的所在地。沿着环绕大海的散步路，可感受与广安里不同魅力的海云台夜景。  从一直以来都保留着得天独厚的自然景色的太宗台，到避难民历史气息尚存的白浅滩文化村和国际市场，以及以全新风景迎接游客到来的五六岛和海水浴场。虽然一日游行程有些紧凑，需要马不停蹄地活动，但为了釜山的美景和美食，付出点体力又何尝不可呢？  </ITEMCNTNTS>  <PLACE>一日游路线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岛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一日游之精髓，穿越东西的路线 </TITLE>  <MAIN\_PLACE>一日游路线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512</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不同日程的旅行</CATE2\_NM>  <LNG>129.097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8</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这是一条教育和自然相融合的颇具意义的旅游路线，推荐给带孩子出行的家庭游游客。只需一天就能游览所有景点，这样的一日游不可小窥哦。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荐路线&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UN纪念公园 - 国立日帝强制动员历史馆 - 五六岛 - 广安里海水浴场/广安大桥 - 冬柏海岸散步路 - 海云台海水浴场 - 迎月路 - 龙宫寺&lt;/p&gt;  UN纪念公园是世界上唯一的联合国军公墓，安息着韩国战争中牺牲的士兵亡灵。在为纪念姓名不详的士兵而建的造型物和刻有士兵姓名的纪念碑之间，还有随风飘扬的参战国国旗，威严的景象让人从心底肃然起敬。来自世界各地的参拜者访问此地，也构成UN纪念公园独有的景象。  如果说通过UN纪念公园可感受到朝鲜战争的悲剧历史，那么国立日帝强制动员历史馆则展现日本殖民统治时期被强制动员的惨况。这里于2015年开馆，是为悼念日本殖民统治时期牺牲的朝鲜人民并记录不可磨灭的悲痛历史痕迹而建的空间。  五六岛位于距离历史馆不远的地方。涨潮时有6座岛屿，退潮时有5座岛屿，因而得名五六岛。行走在悬挂在迎日公园尽头颤颤巍巍的天空步道上，隔着透明玻璃俯瞰脚下的祖母绿大海，会让人感到头晕目眩。五六岛绝妙的海岸佳景是釜山独特魅力之一。  广安里海水浴场是一年四季游客络绎不绝的地方。这里与五六岛不同，可以感受现代的城市氛围和灯火绚丽的夜景。悠闲散步的人们，横跨在蓝海上的气势十足的广安大桥，是象征釜山的一道风景。  游完广安里海水浴场，海云台海水浴场也不容错过。先踏上位于广安里和海云台之间的冬柏岛，沿着冬柏海岸散步路，一边欣赏大海的美妙景色，一边感受漫步丛林的妙趣吧。  迎月路是欣赏海云台海水浴场上空月亮升起的地方。沿着蜿蜒的山坡散步路分布着精致漂亮的画廊、咖啡馆等，周围的景色让人如痴如醉。每到春天，一路盛开的樱花形成樱花隧道。在半山腰的海月亭休息区吹着舒服的海风，闭上眼睛休息片刻吧。  海东龙宫寺是韩国众多寺庙中距离大海最近的寺庙，因此总是人山人海。岩石撞击的海浪与寺庙的幽静巧妙相融，彰显独特的韵味。记得以翡翠大海为背景许下愿望哦。相传，只要在海东龙宫寺许愿，至少有一个愿望会成真，非常灵验。  感受釜山历史和迷人风景的充实一日游路线。  如果想要短暂邂逅釜山魅力之精髓，极力推荐此行程。  </ITEMCNTNTS>  <PLACE>一日游路线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南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与家人同行的历史&amp;自然景观一日游 </TITLE>  <MAIN\_PLACE>一日游路线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humbL</MAIN\_IMG\_THUMB>  <LAT>35.128017</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不同日程的旅行</CATE2\_NM>  <LNG>129.11865</LNG>  <MIDDLE\_SIZE\_RM1/>  <UC\_SEQ>319</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向往让人心旷神怡的大海风景吗？感受釜山大海魅力的一日游路线为您导航。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荐路线&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广安里海水浴场/广安大桥 - 海云台海水浴场 - 釜山水族馆 - 迎月路/月光路 - 青沙浦 - 龙宫寺&lt;/p&gt;  这里是观望作为釜山地标之一的广安大桥的最佳地点，一年四季游客络绎不绝。早晚展现各自不同魅力的广安里海水浴场带给游客不一样的体验。尤其在举办釜山烟火节的秋季夜晚，广安里海水浴场将绽放炫丽的烟花盛宴，让人陶醉不已。  海云台海水浴场拥有宽敞且沙质细腻的沙滩，作为韩国代表性海水浴场而深受各地游客的欢迎。海水浴场的周边铺设了散步路，其中以美著称的冬柏海岸散步路是最近距离地享受大海、海风和城市风景的旅游路线。海云台的另一个人气景点是釜山水族馆。在这里可以观察到多种多样的海洋生物，欣赏悠闲自得地游在头上方的鲨鱼和鳐鱼，场面十分壮观。  从海云台海水浴场去往松亭海水浴场必将经过迎月路。这里是欣赏幽幽月光下海云台海景的最佳地点，因此取名迎月路，也是适合恋人约会的人气景点。沿着迎月路旁海岸而建的月光路是循环散步路，随意的穿着搭配运动鞋就可以徒步了。一边感受松林间弥漫的大海味道，一边享受慢走的乐趣吧。  青沙浦的宁静大海和静谧的港口风景足以让游客心悸澎湃。据说这个小镇原本流传着青蛇传说，后来变成了青沙小镇。胡同里面多姿多彩的壁画吸引着人们的眼球，一白一红的两座灯塔和沿海悬崖上的石桥观景台是深受游客欢迎的打卡景点。就像是去见远方的老朋友，沿着铁轨一路行走，看着路边的野花在风中摇曳。精致美观的工坊和咖啡馆坐落在这里，吸引着欣赏青沙浦美景的游客驻足。  因距离大海最近故称为海上寺庙的海东龙宫寺拥有得天独厚的自然环境，不论在寺内的哪个角落都可以眺望到大海。参拜位于最高处的海水观音大佛后，迎着大海，嘴角会自然地扬起愿望成真一样的微笑。寺庙位于海岸绝壁，因此需要过桥和爬楼梯，沿着狭窄蜿蜒的小路邂逅大海的妙趣也是海东龙宫寺独有的魅力所在。  多姿多彩的釜山大海。  一日即可感受树林、人情和大海魅力的釜山大海一日游路线！  犹如滔滔不绝的海浪般，感受釜山大海的无限魅力吧。  </ITEMCNTNTS>  <PLACE>一日游路线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水营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之最，釜山大海一日游</TITLE>  <MAIN\_PLACE>一日游路线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5311</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不同日程的旅行</CATE2\_NM>  <LNG>129.03648</LNG>  <MIDDLE\_SIZE\_RM1/>  <UC\_SEQ>32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荐路线&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第1天：影岛大桥 - 白浅滩文化村/绝影海岸散步路 - 太宗台 - 国际市场/富平洞铁罐市场 - 龙头山公园  第2天：海云台海水浴场 - 釜山水族馆 - 冬柏海岸散步路（APEC世峰楼）- 五六岛天空步道 - 二妓台海岸散步路 - 广安大桥&lt;/p&gt;  从影岛大桥开启旅程。通往影岛的关门——影岛大桥建于20世纪50年代，是韩国战争时期被迫与亲人分开的家庭期盼日后重逢的著名桥梁。它是韩国首座开启桥，每天下午2点举办开桥仪式。  在白浅滩文化村和村庄下面的绝影海岸散步路，可以参观电影拍摄地，逛一逛精美的咖啡馆，拍下美丽的的海景照等。  来到影岛，以海岸绝景著称的太宗台绝对不容错过。天气晴朗时登上观景台，可以眺望对马岛，乘坐DANUBI列车可以舒适地围绕太宗台兜上一圈。  国际市场是电影《国际市场》取材拍摄的地方，遗留着战争的悲痛历史。在这里可以购买到各种物美价廉的二手商品和进口商品。逛完市场后感到饥肠辘辘的话，去附近的富平洞铁罐市场吧。美味又便宜的小吃将满足您的味蕾！  从国际市场步行10分钟将到达龙头山公园。釜山地标——釜山塔观景台坐落在此，日落时分可以欣赏到绝美景色。黄昏时分被红色晚霞渲染的釜山港、影岛、南浦洞、国际市场等犹如全景图一样映入眼帘。就这样，以日落后的梦幻夜景结束第1天的行程。  第2天的旅程从韩国代表性海水浴场——海云台开始。作为人流不断的著名景点，周围的住宿设施和娱乐设施都一应俱全。  在釜山的室内代表景点——釜山水族馆可以亲眼观看栖息着的多种多样的海洋生物，并且这里在不同时间段还会进行精彩的水中表演。  冬柏岛是树林和大海相融的精品海岸散步路。始于海云台海边尽头，途经APEC世峰楼并通往The Bay 101，也可以以相反顺序游玩。置身白色灯塔的观景台可以眺望到广阔的釜山大海和雄伟的广安大桥。  五六岛是欣赏釜山美丽日出和日落的著名景点。在迎日公园和天空步道俯瞰的祖母绿釜山近海尤为美丽。透明玻璃地面的天空步道会带给游客不一样的刺激和乐趣。  从五六岛通向二妓台海岸散步路。这是一条上下坡的健行路线，沿着海岸漫步的壮观景色不容错过。  来到充满青春热情的市区内大海——广安里海水浴场享受悠闲的时光。太阳下山后，广安大桥以超过10万种炫丽的灯光效果将广安里海边渲染得如钻石般美得一塌糊涂。  沿着釜山海岸线邂逅釜山大海不同面貌的2天1夜旅行，既充实又不单调。  </ITEMCNTNTS>  <PLACE>釜山2天1夜游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岛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2天1夜的釜山海岸线畅游攻略！</TITLE>  <MAIN\_PLACE>釜山2天1夜游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humbL</MAIN\_IMG\_THUMB>  <LAT>35.0955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不同日程的旅行</CATE2\_NM>  <LNG>129.0874</LNG>  <MIDDLE\_SIZE\_RM1/>  <UC\_SEQ>321</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荐路线&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第1天：太宗台 - 松岛海水浴场 - 甘川文化村 - 国际市场/易拉罐市场 - 龙头山公园  第2天：广安大桥 - 海云台海水浴场 - 冬柏海岸散步路/APEC世峰楼 - 迎月岭 - 松亭 - 海东龙宫寺&lt;/p&gt;  太宗台位于影岛南端，是茂密森林、悬崖和大海和谐相融的美丽景点。可以乘坐DANUBI列车环绕整个太宗台转一圈，或者登上荡漾的海上游览船眺望太宗台。  来到位于影岛附近的松岛海水浴场可以在天空和地面感受大海之美。搭乘松岛海上缆车体验飞翔在海面上的刺激感，或者踏上云端散步路，隔着透明地面享受俯瞰的刺激  被称为韩国的马丘比丘的甘川文化村拥有梯田住宅和迷宫般的小巷等独特的景观。这里原本是避难民之家，如今已成为生活与艺术并存的景点。艺术装置和拍照区遍布整个村落，在这里可以欣赏艺术家创作的各种作品，并参与体验艺术家工坊。  位于釜山中区的传统市场——国际市场和易拉罐市场也不容错过。  国际市场的美食街和二手用品街引人注目，在市场内的609空间会举行各种文化表演。富平易拉罐市场夜市有来自全世界的美食和表演，上演无法拒绝的美食诱惑。  距离市场不远的龙头山公园内坐落着俯瞰市内全景的釜山塔。在釜山塔观景台可欣赏城市和海港的全景。让我们欣赏着釜山落日，结束这一天的行程吧。  旅行的第二天从广安里开始吧。沿着广安里海边而建的形形色色的咖啡馆恭候着游客的光临，与釜山地标——广安大桥隔岸相望，可以在这里享受各自的特别时光。与家人一起或者与朋友、与恋人一起，在充满浪漫的广安里海水浴场共同创造美好的回忆吧。  除了广安里外，海云台的海景也同样美好。沙质细腻的海云台白沙滩和位于尽头的冬柏岛也值得一去。  沿着森林和大海而建的冬柏海岸散步路上，在海景最美的地点将遇到曾举办APEC峰会的APEC世峰楼。  适合观看月出的海月亭坐落在与月光交汇的迎月路山顶。从海月亭沿着月光路通往三浦海岸路——尾浦、青沙浦和九德浦。  在韩国冲浪胜地松亭海水浴场享受娱乐和休闲时光。这里设有齐全的海上运动设施，观看驰骋在海面上的冲浪者也别有一番乐趣。  海东龙宫寺拥有美丽的海上风光，是通向大边港的海岸散步路的起点。可以在寺庙的任何一角眺望美丽的蓝色东海，据说只要认真地祈祷，至少有一个愿望会实现。  \*\*\* 上文介绍的三浦海岸路“尾浦铁路”因施工将关闭至2020年6月，特此告知。 \*\*\*  </ITEMCNTNTS>  <PLACE>釜山2天1夜路线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岛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一石二鸟，游玩西釜山和东釜山攻略</TITLE>  <MAIN\_PLACE>釜山2天1夜路线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06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不同日程的旅行</CATE2\_NM>  <LNG>129.16003</LNG>  <MIDDLE\_SIZE\_RM1/>  <UC\_SEQ>322</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荐路线&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第1天：海云台海水浴场 - 水族馆 - 冬柏岛 - 迎月路 - 海东龙宫寺 -机张竹城天主教堂  第2天：松岛海水浴场 - 岩南公园/松岛海岸观景路 - 峨嵋山观景台 - 多大浦海水浴场/梦之夕阳喷泉&lt;/p&gt;  现在全世界游客访问的海云台海水浴场不仅有优质的白沙滩，还充满了各种各样的趣味活动。以龟南路为中心每周末举办大大小小的活动，可让游客尽享大海带来的乐趣。  在访问海云台海水浴场时，一定要去釜山水族馆。这是代表釜山与庆南地区的海洋主题公园。这里的隧道水族馆让人感到仿佛在横穿海底，一直以来都吸引着来自四面八方的游客。  海云台海洋的真正魅力就在冬柏岛彰显。岛上有美丽的散步路，春天来临前争先盛开的冬柏花与绿葱葱的树丛融为一体，让人感受独特的海洋风光。  在釜山兜风路线当中不可缺少的要数迎月路，建议在这里暂时下车走一走。在与迎月路连接的月光路上人们只要轻松一走就可以感到神清气爽。在顶峰不仅有看月出的好地方——海月亭，而且林立着极有韵味的咖啡馆。  与机张海洋连接的陆地末端是海东龙宫寺。龙宫寺仿佛是建在水面上的，风景也是这边独好。因此全年来访问的游客络绎不绝。  拍摄电视剧的时候，作为布景地而建设的机张竹城天主教堂是静静的波浪、凉爽的风与天主教堂固有的轻松感完美结合的地方。尖尖的尖塔、红色屋顶与蓝海相遇，给游客带来异国风趣。  松岛海水浴场是一年四季男女老少都能够访问的综合海洋休养地，这里以将海上缆车与云散步路融为一体的最佳海洋景观为骄傲，重新寻回100年松岛的名声。在远洋如星星点点漂着的大型船舶给游客带来梦幻的海洋，游客还因脚下的蓝海壮观景象感到些许紧张。  海岸观景路和岩南公园带给游客的风景与松岛海水浴场截然不同。游客不仅能在沿着奇岩怪石屹立的海岸在木板设置的海岸观景路上漫步、欣赏如画的南海，还能在拥有魅力林道的岩南公园享受森林浴。  峨嵋山观景台为游客带来与洛东江河口相遇形成三角洲的绝景和日落美景。因为在这里能够欣赏沙岛、候鸟与夕阳等天然景观，所以很多人来访此地。位于洛东江河口的美丽芦苇田也是一个让人难忘的壮观景象。  到傍晚时分，建议您去多大浦海水浴场，因为这里是釜山夕阳最美丽的地方。太阳将金粉撒在海面上，渐渐西下的景观正如电影中的一幕十分辉煌。另外，与形形色色的照明结合在一起的超大型音乐喷泉——多大浦梦之夕阳喷泉喷水时，则给人凉爽舒适之感。  华丽的东海与涟漪的南海给游客留下深刻印象的这次旅行路线将让釜山成为“难忘的景点”。  </ITEMCNTNTS>  <PLACE>釜山两天一夜路线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海云台区</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感受华丽的东海与涟漪的南海的釜山之旅</TITLE>  <MAIN\_PLACE>釜山两天一夜路线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humbL</MAIN\_IMG\_THUMB>  <LAT>35.15841</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68</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5) [부산테마여행 중문 번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5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테마여행 중문 번체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테마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중문 번체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Zht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64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30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강다니엘코스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影島區 | 구군 |
| CATE2\_NM | 구분 | 100 | 0 | 特色旅遊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07886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28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姜丹尼爾路線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姜丹尼爾路線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 부제목 |
| MAIN\_PLACE | 주요장소 | 300 | 0 | 姜丹尼爾路線 | 주요장소 |
| ADDR1 | 주소 | 200 | 0 |  | 주소 |
| ADDR2 | 주소 기타 | 200 | 0 |  | 주소 기타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200 | 0 |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通過《Produce 101》第二季節目出道的歌手——姜丹尼爾。  得益於他的人氣，粉絲從世界各地湧來，奔向他所出生並成長的故鄉—釜山。  釜山因姜丹尼爾粉絲的“粉絲之旅”而備受關注。  他曾在釜山停留過的各個地方都已成為“朝聖之路”。  釜山影島出身的薑丹尼爾的母校，以及釜山著名景點和美食店，  下面介紹一下既可以追星，又可以旅遊的薑丹尼爾路線。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薑丹尼爾旅遊路線&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影島大橋 - 新仙初中 - 月亮升起 - 白川文化村 - 太宗台&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島大橋&lt;/p&gt;首先去的地方是韓國唯一的開啟橋——影島大橋。很多人都說影島旅行就應該從影島大橋開始，只要是釜山居民就沒有人不知道這個場所的象徵意義。姜丹尼爾可能也與家人和朋友們來過無數次。從古至今，在連接影島和陸地的影島大橋，每天下午2點都會舉行15分鐘的開啟活動。每天這個時段，人們為觀看影島大橋向上開啟的特殊場面蜂擁而至。如果想真正仔細觀看影島大橋的開啟過程，建議您從南浦洞方向觀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新仙初中&lt;/p&gt;如果進入影島，就乘坐巴士去新仙初中看看吧。這裡是姜丹尼爾的母校，是他在影島度過三年學生時代的地方。從每天早晨上學時走過的學校前面的胡同到運動場，再到留下他痕蹟的書桌。相信粉絲們只要想像他的學生時代就會心動不已。從學校俯瞰的蔚藍大海的風景也是一種贈送。如果想訪問學生們學習的學校，那麼就要保持肅靜。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青花魚生魚片餐廳&lt;/p&gt;訪問新仙初中後，學校下面的青花魚生魚片專門餐廳也是不容錯過的地方。因為這是姜丹尼爾第一次與母校老師一起飲酒的地方。  這家餐廳的醋拌青花魚生魚片和海鮮菜餚堪稱一絕，雖然規模較小，但小巧玲瓏且充滿風味的餐廳氛圍足以勾起昔日情調。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白川文化村&lt;/p&gt;影島白川文化村也是必遊景點。該地區的藝術家和居民齊心協力，重新裝修了古老的村莊，此處被稱為“韓國的聖托里尼”。美麗的壁畫和開闊的海景是留下絕美照片的好地方。整個村子都是以海為鄰，沿著狹窄的胡同向前，肯定會被田園詩般的的漁村風景所吸引。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太宗台&lt;/p&gt;太宗台自古以來就是影島代表性的遊園區。在影島長大的人，學生時代都會去太宗台郊遊。姜丹尼爾也一定在學校郊遊的日子來太宗台盡情玩耍過。如果想途步遊覽廣闊的大海和奇岩怪石的神秘，太宗台是最好不過的地方，但需要1個小時以上的時間。如果覺得走路不太方便，也可以乘坐低速“DANUBI列車”。  從影島大橋開始到太宗台的薑丹尼爾旅遊路線。孕育姜丹尼爾歌手夢想的胡同以及影島代表性的名勝。如此看來，影島擁有可以花一天時間盡情遊覽的各種美麗風景。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RecommendedService/getRecommendedZht?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강다니엘코스</MAIN\_TITLE>  <CATE2\_NM>特色旅遊</CATE2\_NM>  <LNG>129.04428</LNG>  <MIDDLE\_SIZE\_RM1/>  <UC\_SEQ>305</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通過《Produce 101》第二季節目出道的歌手——姜丹尼爾。  得益於他的人氣，粉絲從世界各地湧來，奔向他所出生並成長的故鄉—釜山。  釜山因姜丹尼爾粉絲的“粉絲之旅”而備受關注。  他曾在釜山停留過的各個地方都已成為“朝聖之路”。  釜山影島出身的薑丹尼爾的母校，以及釜山著名景點和美食店，  下面介紹一下既可以追星，又可以旅遊的薑丹尼爾路線。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薑丹尼爾旅遊路線&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影島大橋 - 新仙初中 - 月亮升起 - 白川文化村 - 太宗台&lt;/p&gt;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島大橋&lt;/p&gt;首先去的地方是韓國唯一的開啟橋——影島大橋。很多人都說影島旅行就應該從影島大橋開始，只要是釜山居民就沒有人不知道這個場所的象徵意義。姜丹尼爾可能也與家人和朋友們來過無數次。從古至今，在連接影島和陸地的影島大橋，每天下午2點都會舉行15分鐘的開啟活動。每天這個時段，人們為觀看影島大橋向上開啟的特殊場面蜂擁而至。如果想真正仔細觀看影島大橋的開啟過程，建議您從南浦洞方向觀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新仙初中&lt;/p&gt;如果進入影島，就乘坐巴士去新仙初中看看吧。這裡是姜丹尼爾的母校，是他在影島度過三年學生時代的地方。從每天早晨上學時走過的學校前面的胡同到運動場，再到留下他痕蹟的書桌。相信粉絲們只要想像他的學生時代就會心動不已。從學校俯瞰的蔚藍大海的風景也是一種贈送。如果想訪問學生們學習的學校，那麼就要保持肅靜。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青花魚生魚片餐廳&lt;/p&gt;訪問新仙初中後，學校下面的青花魚生魚片專門餐廳也是不容錯過的地方。因為這是姜丹尼爾第一次與母校老師一起飲酒的地方。  這家餐廳的醋拌青花魚生魚片和海鮮菜餚堪稱一絕，雖然規模較小，但小巧玲瓏且充滿風味的餐廳氛圍足以勾起昔日情調。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白川文化村&lt;/p&gt;影島白川文化村也是必遊景點。該地區的藝術家和居民齊心協力，重新裝修了古老的村莊，此處被稱為“韓國的聖托里尼”。美麗的壁畫和開闊的海景是留下絕美照片的好地方。整個村子都是以海為鄰，沿著狹窄的胡同向前，肯定會被田園詩般的的漁村風景所吸引。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太宗台&lt;/p&gt;太宗台自古以來就是影島代表性的遊園區。在影島長大的人，學生時代都會去太宗台郊遊。姜丹尼爾也一定在學校郊遊的日子來太宗台盡情玩耍過。如果想途步遊覽廣闊的大海和奇岩怪石的神秘，太宗台是最好不過的地方，但需要1個小時以上的時間。如果覺得走路不太方便，也可以乘坐低速“DANUBI列車”。  從影島大橋開始到太宗台的薑丹尼爾旅遊路線。孕育姜丹尼爾歌手夢想的胡同以及影島代表性的名勝。如此看來，影島擁有可以花一天時間盡情遊覽的各種美麗風景。  </ITEMCNTNTS>  <PLACE>姜丹尼爾路線</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姜丹尼爾路線</TITLE>  <MAIN\_PLACE>姜丹尼爾路線</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4495593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65</LAT>  </item>  <item>  <MAIN\_TITLE>부산벚꽃투어</MAIN\_TITLE>  <CATE2\_NM>特色旅遊</CATE2\_NM>  <LNG>128.97269</LNG>  <MIDDLE\_SIZE\_RM1/>  <UC\_SEQ>306</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這裡是在韓國除了濟州島，櫻花最先綻放的地方，  暫時離開城市，  伴隨山川、河流、大海一起欣賞櫻花的地方，  釜山的春天與你共享。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大渚生態公園&lt;/p&gt;大渚生態公園是韓國最大規模的油菜花園。這裡有各種體育設施，因此還可以同時享受閒暇時間和休息。在油菜花凋謝之際，櫻花綻開花蕾形成嫩粉色和黃色波浪，景象十分壯觀。每到3月末，江西洛東江30裡一帶會如期迎來櫻花節，每到這個時候，洛東江邊就會出現一片白花花的櫻花葉迎接春天的盛況。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三樂生態公園&lt;/p&gt;三樂生態公園以候鳥遷徙地而著稱，擁有野花園區、自行車道、散步路、汽車露營場等，在此可以進行各種戶外活動。特別是每到春天，種植於洛東堤防的3000多棵櫻花樹形成白色的花瓣隧道，日落時分燈光一亮，將營造出讓人欣喜的浪漫氛圍。這就是為什麼在選擇釜山最佳櫻花觀賞地時不能排除三樂生態公園的原因。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麥島生態公園&lt;/p&gt;麥島生態公園是冬季鳥類飛來的地方，有探訪路、濕地台、荷花園區、水生植物園、體育設施等，一年四季都是市民們喜愛的地方。在釜山的櫻花名勝中，這裡還沒被廣為人知，因此可以悠閒地享受春天。因為沒有貨攤，所以非常適合想在寂靜的氣氛中賞櫻的遊客。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海雲台迎月路&lt;/p&gt;釜山的人氣兜風路線“海雲台迎月路”和山坡上的“咖啡街”是戀人們經常去的約會場所。特別是櫻花盛開的傍晚，滿月時月光和櫻花營造出的夢幻氛圍令人難以忘懷。邊沿著坡路漫步，邊在月光下欣賞逐漸絢麗的櫻花群舞，可謂一大亮點。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南川洞櫻花街&lt;/p&gt;釜山代表性的櫻花生態群落——南川洞櫻花街是外國遊客經常光顧的景點。從三益海灘公寓到廣安里海邊都是可以悠閒賞櫻的不為人知的名勝。每到春天，在小區之間的路邊兜風或櫻花樹下創造回憶的人比比皆是。在櫻花季節，考慮到周圍的居民，請不要忘記放低音量的“體貼”。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東大新洞櫻花街&lt;/p&gt;還有一個連釜山人都很少知道的櫻花勝地，那就是東大新洞三益公寓櫻花隧道。  每年春天在住宅和公寓園區之間都會盛開粉紅色的櫻花。由於目前尚未廣為人知，因此與繁雜的知名櫻花路相比，這裡可以讓人更安靜地享受春天。盛開的櫻花和路燈燈光相映成趣，魅力無限，下班路上也可暫時來逛逛，留住春天的美好。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溫泉川咖啡街&lt;/p&gt;溫泉川咖啡街是充滿全新氛圍的咖啡館，是年輕人經常光顧的地方。但是這裡最擁擠的時期還屬櫻花季節。白天，明亮的粉紅色櫻花在溫泉川形成倒影，盡顯迷人風景，而夜晚與路燈燈光相容的櫻花盛宴又會吸引眾人駐足。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荒嶺山櫻花街&lt;/p&gt;釜山的代表性名山——荒嶺山與沿著通往山頂的道路形成了櫻花樹生態群落。每到春天，是釜山市內觀賞夜景和櫻花的最佳場所。特別是櫻花落地之時，駕車行駛在這條路上就能看到花瓣如雨般飄落的浪漫美景。  在花瓣紛飛的公路盡頭，可將陶醉於春天的釜山盡收眼底。  荒嶺山櫻花街  釜山的代表性名山——荒嶺山與沿著通往山頂的道路形成了櫻花樹群。每到春天，是在釜山市內觀賞夜景和櫻花的最佳場所。特別是櫻花落地之時，駕車行駛在這條路上就能看到花瓣如雨般灑落下來的美景。  在花瓣紛飛的公路盡頭，可將陶醉於春天的釜山盡收眼底。  </ITEMCNTNTS>  <PLACE>櫻花之旅</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沙上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各處，櫻花盛開</TITLE>  <MAIN\_PLACE>櫻花之旅</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17182325604\_thumbL</MAIN\_IMG\_THUMB>  <LAT>35.170444</LAT>  </item>  <item>  <MAIN\_TITLE>유채꽃명소</MAIN\_TITLE>  <CATE2\_NM>特色旅遊</CATE2\_NM>  <LNG>128.97322</LNG>  <MIDDLE\_SIZE\_RM1/>  <UC\_SEQ>30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3月和4月，整個釜山會被染成黃色。因為釜山的山和公園都會被油菜花裝點得異常美麗。  擁有開闊大海風景的油菜花田、韓國最大規模的油菜花公園等都是釜山的春天可以見到的勝地。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大渚生態公園&lt;/p&gt;大渚生態公園是韓國面積最大的76萬平方米油菜花園區。這裡足足有63個足球場大的規模，而且離市中心很近，每到油菜花季節這裡總是人潮湧動。特別是作為每年4月都會舉行“釜山洛東江油菜花節”的場所，從特色開幕式到集體婚禮、音樂演出等，為遊客們提供了多樣的看點。  在大渚生態公園可以免費租賃自行車，在寬闊的油菜花叢中自由穿梭，嘻嘻哈哈地踩著踏板會別有一番情趣。另外這裡還以吸引釜山地區攝影愛好者的野外拍攝地而聞名，在廣闊的油菜花田中到處都能聽到把美麗的風景裝入鏡頭的快門聲。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三樂生態公園&lt;/p&gt;三樂生態公園是位於沙上區三樂洞洛東江岸邊的市民公園。每年一到春天都可以在這裡同時享受洛東江兩邊的櫻花隧道和油菜花田，非常有名。  一般每年4月初會舉行“三樂油菜花節”，這時，不光是釜山，就連韓國各地的遊客也會蜂擁而至。每到舉辦慶典的時期，到處都會設置拍照區並舉行各種街頭演出。  三樂生態公園設有自行車專用車道、散步路線、汽車露營場、水上休閒運動城等，各種休閒設施一應俱全。在慶典期間一起享受休閒活動也是不錯的選擇。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溫泉川市民公園&lt;/p&gt;位於釜山東萊區的溫泉川市民公園是橫跨城市中心的生態河川。每到一到春天，櫻花、油菜花、映山紅都會遍地盛開，成為最佳散步路。尤其是各色花蕾在河川形成倒影的場景，是溫泉市民公園不可錯過的場景。溫泉川市民公園的另一大看點是夜間觀賞油菜花。在咖啡街上看到的油菜花、櫻花與小夜燈形成和諧的夢幻般美景，讓釜山的夜晚變得無比美麗。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五六島&lt;/p&gt;位於釜山南區龍湖洞的五六島日出公園位於天空步道後面的山腳下。這個公園最美麗的時期是油菜花花蕾綻放期。每年3月末-4月，圍繞公園的海岸懸崖和覆蓋整個公園的油菜花就會爛漫盛開。黃燦燦的油菜花和碧海相映成趣，猶如一幅風景畫。涼爽的海風吹起時，就會看到黃色花瓣點綴在空中的夢幻場景。透過海岸絕壁上透明的玻璃橋扣人心弦地欣賞大海美景的天空步道也是不可錯過的景點。  每到春天，雖然最先想到櫻花的人很多，但知道釜山有韓國最大規模的油菜花田的人卻為數不多。  到釜山各地的油菜勝地去賞花時，很多地方都可以同時觀賞到櫻花，這不正是好好享受春天一箭雙雕的好方法嗎？  請跟隨清新的油菜花香，來切身感受一下釜山的春天吧  </ITEMCNTNTS>  <PLACE>油菜花勝地</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市西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油菜花勝地</TITLE>  <MAIN\_PLACE>油菜花勝地</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51124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9906</LAT>  </item>  <item>  <MAIN\_TITLE>무장애여행</MAIN\_TITLE>  <CATE2\_NM>特色旅遊</CATE2\_NM>  <LNG>129.01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0 medium"&gt;路線1 : 都市鐵路海雲台站-水族館-冬柏公園海岸散步路、APEC世峰樓-The Bay 101&lt;/p&gt;  都市鐵路海雲台站內設有電梯、坡道、電動輪椅充電的空間。從地下走到地上後，可沿著設有盲人砌塊的龜南路，前往為盲人設有導遊解說器的水族館 。  冬柏公園海岸散步路是可用輪椅自由通行整個公園的地方。在APEC世峰樓可免費租賃輪椅。在美麗的散步路各處都可享受森林治愈，還可以一覽山、大海、廣安大橋的風景，是冬柏島的驕傲。  在位於冬柏島入口的The Bay 101可一邊欣賞夜景，一邊享用美食和茶。這裡設有殘疾人專用停車區、殘疾人專用洗手間和電梯。  &lt;p class="font-size20 medium"&gt;路線2 : 松島海水浴場、天空步道、纜車-岩南公園觀景台&lt;/p&gt;  松島海水浴場入口設有緩慢傾斜的輪椅專用通道。是韓國海上散步路中最長的空中步道，便於遊客出入。  因安全問題電動輪椅無法上到松島海上纜車，因此可換乘現場配備的普通輪椅然後乘坐纜車進行遊覽。在岩南公園車站的天空花園觀景台，可以眺望大海全景，觀景台內還設有殘疾人專用洗手間等各種便利設施。  松島岩南公園也是必去的景點，可乘坐輪椅沿著散步路移動，還可以盡情享受涼爽的海風和海岸美景。  &lt;p class="font-size20 medium"&gt;路線3 : 松亭海水浴場-水產科學館-五郎台公園-大邊港-竹城天主教堂&lt;/p&gt;  沿著在松亭海水浴場白沙灘設置的台型散步路便於輪椅移動，散步路中途還設有殘疾人專用洗手間。  擁有漂亮室外觀景台的國立水產科學館也設有殘疾人專用洗手間和殘疾人專用停車區，且展覽館為免費入場 。  日出名勝五郎台公園位於海邊正前方，是輪椅也可通行的有名的散步路。五郎台附近的大邊港因機張鳀魚而聞名於世，是一座可看到美麗燈塔的小漁村。  因拍攝電視劇而出名的竹城天主教堂以大海景觀以及與天主教堂建築相結合的如畫般的風景吸引著人們的目光。雖然輪椅可以通行，但停車位並不充足。  &lt;p class="font-size20 medium"&gt;路線4 : 影島大橋-奚琴村-絕影海岸散步路-太宗台遊園區&lt;/p&gt;  每天下午2點，影島大橋都會舉行開啟活動，雖然可以乘坐輪椅，但人流較多時，參觀的地方可能並不寬裕 。  聚集修理造船廠的大平洞奚琴村是靜靜環顧村莊、尋找隱藏藝術作品的有趣之處。現如今，村子裡各處也仍有營業中的船舶修理場和工業公司，因此建議您在周末或利用綜合旅遊項目來參觀。  從絕影海岸散步路入口到白川隧道，用輪椅通行和步行移動都比較容易，是最靠近影島大海的路線。這裡設有殘疾人專用停車區和殘疾人專用洗手間。  在太宗台可乘坐DANUBI列車遊覽整個遊園區，也可以租賃輪椅。還能看到太宗台的奇岩怪石和碧海。  </ITEMCNTNTS>  <PLACE>無障礙旅遊</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海雲臺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無障礙旅遊景點</TITLE>  <MAIN\_PLACE>無障礙旅遊</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730459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7614</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自訂行程</CATE2\_NM>  <LNG>129.08714</LNG>  <MIDDLE\_SIZE\_RM1/>  <UC\_SEQ>317</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釜山的悠久大海，珍藏釜山歷史的景點，釜山的全新海岸。  這裡有暢遊釜山的三色魅力大海、穿越東西的一日遊路線 。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薦路線&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太宗台 - 白淺灘文化村 - 國際市場 - 龍頭山公園 - 五六島 - 廣安里海水浴場/廣安大橋 - 海雲台海水浴場 - 冬柏海岸散步路&lt;/p&gt;  從西部影島的大海出發，位於影島盡頭的太宗台展現無限美好風光。  天氣晴朗時可以眺望到對馬島，可一年四季欣賞白色浪花拍打在奇岩絕壁上的壯觀場面。乘坐DANUBI列車可以舒適地圍繞太宗台兜上一圈，每到初夏，繡球花盛開的景像也令遊客陶醉。  避難民在影島峭壁上搭上木板居住，形成了白淺灘文化村。懸崖峭壁下沿著海岸延伸的散步路讓人心曠神怡。村落裡有許多壁畫和溫馨的咖啡館、照相館等，很多遊客喜歡來這裡感受小確幸。因電影拍攝地而聞名的白淺灘文化村，很多遊客為了拍照打卡慕名而來，即使排隊也是愉快的經歷。  國際市場是電影《國際市場》取材拍攝的地方，遺留著避難民悲歡離合的歷史。這裡到處都有小吃美食，適合填飽飢腸轆轆的肚子。還能購買到物美價廉的二手商品，在這裡駐足片刻隨便逛逛也是打發時間的不錯選擇。  從國際市場步行10分鐘將到達龍頭山公園。公園中央屹立著釜山地標——釜山塔，爬上觀景台可以眺望遊走在海面上的船隻，將釜山的動態活力景像一覽無餘 。  繼續向東部移動，可以欣賞南海與東海邂逅的五六島。搭建在懸崖峭壁上的透明玻璃天空步道，帶給遊客不一樣的刺激感受，這裡也是觀看日出和落日的著名景點。傍晚來訪時, 釜山大海的美麗日落景象令人心醉 。  欣賞完日落後，下一站去往廣安里海水浴場。廣安大橋的美麗夜景如鑽石般璀璨絢麗，每晚10萬種以上的色彩變換，像伴隨著海浪聲音舞動般絢麗多姿，讓遊客大飽眼福。  毗鄰廣安里海岸但氛圍卻截然不同的海雲台海水浴場、海雲台傳統市場以及沙灘後面秩序井然的大排檔，這裡的美食誘惑讓人欲罷不能。小吃、韓餐、夜宵還有新鮮的海鮮，帶您嘗盡釜山的美味。  冬柏海岸散步路始於海雲台的盡頭，環繞著冬柏島。這裡是2005年APEC峰會舉辦會議的世峰樓的所在地。沿著環繞大海的散步路，可感受與廣安里不同魅力的海雲台夜景。  從一直以來都保留著得天獨厚的自然景色的太宗台，到避難民歷史氣息尚存的白淺灘文化村和國際市場，以及以全新風景迎接遊客到來的五六島和海水浴場。雖然一日遊行程有些緊湊，需要馬不停蹄地活動，但為了釜山的美景和美食，付出點體力又何嘗不可呢？  </ITEMCNTNTS>  <PLACE>一日遊路線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一日遊之精髓，穿越東西的路線 </TITLE>  <MAIN\_PLACE>一日遊路線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2439590\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512</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自訂行程</CATE2\_NM>  <LNG>129.09767</LNG>  <MIDDLE\_SIZE\_RM1/>  <UC\_SEQ>318</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這是一條教育和自然相融合的頗具意義的旅遊路線，推薦給帶孩子出行的家庭遊遊客。只需一天就能遊覽所有景點，這樣的一日遊不可小窺哦。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薦路線&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UN紀念公園 - 國立日帝強制動員歷史館 - 五六島 - 廣安里海水浴場/廣安大橋 - 冬柏海岸散步路 - 海雲台海水浴場 - 迎月路 - 龍宮寺&lt;/p&gt;  UN紀念公園是世界上唯一的聯合國軍公墓，安息著朝鮮戰爭中犧牲的士兵亡靈。在為紀念姓名不詳的士兵而建的造型物、刻有士兵姓名的紀念碑之間，還有隨風飄揚的參戰國國旗，威嚴的景象讓人心底產生肅然起敬之意。來自世界各地的參拜者訪問此地，也構成UN紀念公園獨有的景象 。  如果說通過UN紀念公園可感受到朝鮮戰爭的悲劇歷史，那麼國立日帝強制動員歷史館則展現日本殖民統治時期被強制動員的慘況。這裡於2015年開館，是為悼念日本殖民統治時期犧牲的朝鮮人民並記錄不可磨滅的悲痛歷史痕跡而建的空間 。  五六島位於距離歷史館不遠的地方。漲潮時有6座島嶼，退潮時有5座島嶼，因而得名五六島。行走在懸掛在迎日公園盡頭顫顫巍巍的天空步道上，隔著透明玻璃俯瞰腳下的祖母綠大海，會讓人感到頭暈目眩。五六島絕妙的海岸佳景是釜山獨特魅力之一。  廣安里海水浴場是一年四季遊客絡繹不絕的地方。這裡與五六島不同，可以感受現代的城市氛圍和燈火絢麗的夜景。悠閒散步的人們，橫跨在藍海上的氣勢十足的廣安大橋，是像徵釜山的一道風景。  游完廣安里海水浴場，海雲台海水浴場也不容錯過。先踏上位於廣安里和海雲台之間的冬柏島，沿著冬柏海岸散步路，一邊欣賞大海的美妙景色，一邊感受漫步叢林的妙趣吧。  迎月路是欣賞海雲台海水浴場上空月亮升起的地方。沿著蜿蜒的山坡散步路分佈著精緻漂亮的畫廊、咖啡館等，周圍的景色讓人如痴如醉。每到春天，一路盛開的櫻花形成櫻花隧道。在半山腰的海月亭休息區吹著舒服的海風，閉上眼睛休息片刻吧。  海東龍宮寺是韓國眾多寺廟中距離大海最近的寺廟，因此總是人山人海。岩石撞擊的海浪與寺廟的幽靜巧妙相融，彰顯獨特的韻味。記得以翡翠大海為背景許下願望哦。相傳，只要在海東龍宮寺許願，至少有一個願望會成真，非常靈驗。  感受釜山歷史和迷人風景的充實一日遊路線。  如果想要短暫邂逅釜山魅力之精髓，極力推薦此行程。  </ITEMCNTNTS>  <PLACE>一日遊路線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南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與家人同行的歷史&amp;自然景觀一日遊</TITLE>  <MAIN\_PLACE>一日遊路線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3908464\_thumbL</MAIN\_IMG\_THUMB>  <LAT>35.128017</LAT>  </item>  <item>  <MAIN\_TITLE>당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自訂行程</CATE2\_NM>  <LNG>129.11865</LNG>  <MIDDLE\_SIZE\_RM1/>  <UC\_SEQ>319</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嚮往讓人心曠神怡的大海風景嗎？感受釜山大海魅力的一日遊路線為您導航。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薦路線&lt;/p&gt;  &lt;p class="font-size20 medium"&gt;廣安里海水浴場/廣安大橋 - 海雲台海水浴場 - 釜山水族館 - 迎月路/月光路 - 青沙浦 - 龍宮寺&lt;/p&gt;  這裡是觀望作為釜山地標之一的廣安大橋的最佳地點，一年四季遊客絡繹不絕。早晚展現各自不同魅力的廣安里海水浴場帶給遊客不一樣的體驗。尤其在舉辦釜山煙火節的秋季夜晚，廣安里海水浴場將綻放炫麗的煙花盛宴，讓人陶醉不已。  海雲台海水浴場擁有寬敞且沙質細膩的沙灘，作為韓國代表性海水浴場而深受各地遊客的歡迎。海水浴場的周邊鋪設了散步路，其中以美著稱的冬柏海岸散步路是最近距離地享受大海、海風和城市風景的旅遊路線。海雲台的另一個人氣景點是釜山水族館。在這裡可以觀察到多種多樣的海洋生物，欣賞悠閒自得地遊在頭上方的鯊魚和鰩魚，場面十分壯觀。  從海雲台海水浴場去往松亭海水浴場必將經過迎月路。這裡是欣賞幽幽月光下海雲台海景的最佳地點，因此取名迎月路，也是適合戀人約會的人氣景點。沿著迎月路旁海岸而建的月光路是循環散步路，隨意的穿著搭配運動鞋就可以徒步了。一邊感受松林間瀰漫的大海味道，一邊享受慢走的樂趣吧。  青沙浦的寧靜大海和靜謐的港口風景足以讓遊客心悸澎湃。據說這個小鎮原本流傳著青蛇傳說，後來變成了青沙小鎮。胡同里面多姿多彩的壁畫吸引著人們的眼球，一白一紅的兩座燈塔和沿海懸崖上的石橋觀景台是深受遊客歡迎的打卡景點。就像是去見遠方的老朋友，沿著鐵軌一路行走，看著路邊的野花在風中搖曳。精緻美觀的工坊和咖啡館坐落在這裡，吸引著欣賞青沙浦美景的遊客駐足。  因距離大海最近故稱為海上寺廟的海東龍宮寺擁有得天獨厚的自然環境，不論在寺內的哪個角落都可以眺望到大海。參拜位於最高處的海水觀音大佛後，迎著大海，嘴角會自然地揚起願望成真一樣的微笑。寺廟位於海岸絕壁，因此需要過橋和爬樓梯，沿著狹窄蜿蜒的小路邂逅大海的妙趣也是海東龍宮寺獨有的魅力所在。  多姿多彩的釜山大海。  一日即可感受樹林、人情和大海魅力的釜山大海一日遊路線！  猶如滔滔不絕的海浪般，感受釜山大海的無限魅力吧。  </ITEMCNTNTS>  <PLACE>一日遊路線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水營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釜山之最，釜山大海一日遊</TITLE>  <MAIN\_PLACE>一日遊路線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48034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5311</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1</MAIN\_TITLE>  <CATE2\_NM>自訂行程</CATE2\_NM>  <LNG>129.03648</LNG>  <MIDDLE\_SIZE\_RM1/>  <UC\_SEQ>320</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薦路線&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第1天：影島大橋 - 白淺灘文化村/絕影海岸散步路 - 太宗台 - 國際市場/富平洞鐵罐市場 - 龍頭山公園  第2天：海雲台海水浴場 - 釜山水族館 - 冬柏海岸散步路（APEC世峰樓）- 五六島天空步道 - 二妓台海岸散步路 - 廣安大橋&lt;/p&gt;  從影島大橋開啟旅程。通往影島的關門——影島大橋建於20世紀50年代，是韓國戰爭時期被迫與親人分開的家庭期盼日後重逢的著名橋樑。它是韓國首座開啟橋，每天下午2點舉辦開橋儀式。  在白淺灘文化村和村莊下面的絕影海岸散步路，可以參觀電影拍攝地，逛一逛精美的咖啡館，拍下美麗的的海景照等。  來到影島，以海岸絕景著稱的太宗台絕對不容錯過。天氣晴朗時登上觀景台可以眺望對馬島，乘坐DANUBI列車可以舒適地圍繞太宗台兜上一圈 。  國際市場是電影《國際市場》取材拍攝的地方，遺留著戰爭的悲痛歷史。在這裡可以購買到各種物美價廉的二手商品和進口商品。逛完市場後感到飢腸轆轆的話，去附近的富平洞鐵罐市場吧。美味又便宜的小吃將滿足您的味蕾！  從國際市場步行10分鐘將到達龍頭山公園。釜山地標——釜山塔觀景台坐落在此，日落時分可以欣賞到絕美景色。黃昏時分被紅色晚霞渲染的釜山港、影島、南浦洞、國際市場等猶如全景圖一樣映入眼簾。就這樣，以日落後的夢幻夜景結束第1天的行程。  第2天的旅程從韓國代表性海水浴場——海雲台開始。作為人流不斷的著名景點，周圍的住宿設施和娛樂設施都一應俱全。  在釜山的室內代表景點——釜山水族館可以親眼觀看棲息著的多種多樣的海洋生物，並且這裡在不同時間段還會進行精彩的水中表演。  冬柏島是樹林和大海相融的精品海岸散步路。始於海雲台海邊盡頭，途經APEC世峰樓並通往The Bay 101，也可以以相反順序遊玩。置身白色燈塔的觀景台可以眺望到廣闊的釜山大海和雄偉的廣安大橋。  五六島是欣賞釜山美麗日出和日落的著名景點。在迎日公園和天空步道俯瞰的祖母綠釜山近海尤為美麗。透明玻璃地面的天空步道會帶給遊客不一樣的刺激和樂趣。  從五六島通向二妓台海岸散步路。這是一條上下坡的健行路線，沿著海岸漫步的壯觀景色不容錯過。  來到充滿青春熱情的市區內大海——廣安里海水浴場享受悠閒的時光。太陽下山後，廣安大橋以超過10萬種炫麗的燈光效果將廣安里海邊渲染得如鑽石般美得一塌糊塗。  沿著釜山海岸線邂逅釜山大海不同面貌的2天1夜旅行，既充實又不單調。  </ITEMCNTNTS>  <PLACE>釜山2天1夜遊 1</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2天1夜的釜山海岸線暢遊攻略！</TITLE>  <MAIN\_PLACE>釜山2天1夜遊 1</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95857630\_thumbL</MAIN\_IMG\_THUMB>  <LAT>35.0955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2</MAIN\_TITLE>  <CATE2\_NM>自訂行程</CATE2\_NM>  <LNG>129.0874</LNG>  <MIDDLE\_SIZE\_RM1/>  <UC\_SEQ>321</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薦路線&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第1天：太宗台 - 松島海水浴場 - 甘川文化村 - 國際市場/易拉罐市場 - 龍頭山公園  第2天：廣安大橋 - 海雲台海水浴場 - 冬柏海岸散步路/APEC世峰樓 - 迎月嶺 - 松亭 - 海東龍宮寺&lt;/p&gt;  太宗台位於影島南端，是茂密森林、懸崖和大海和諧相融的美麗景點。可以乘坐DANUBI列車環繞整個太宗台轉一圈，或者登上蕩漾的海上游覽船眺望太宗台。  來到位於影島附近的松島海水浴場可以在天空和地面感受大海之美。搭乘松島海上纜車體驗飛翔在海面上的刺激感，或者踏上雲端散步路，隔著透明地面享受俯瞰的刺激  被稱為韓國的馬丘比丘的甘川文化村擁有梯田住宅和迷宮般的小巷等獨特的景觀。這裡原本是避難民之家，如今已成為生活與藝術並存的景點。藝術裝置和拍照區遍布整個村落，在這裡可以欣賞藝術家創作的各種作品，並參與體驗藝術家工坊。  位於釜山中區的傳統市場——國際市場和易拉罐市場也不容錯過。  國際市場的美食街和二手用品街引人注目，在市場內的609空間會舉行各種文化表演。富平易拉罐市場夜市有來自全世界的美食和表演，上演無法拒絕的美食誘惑。  距離市場不遠的龍頭山公園內坐落著俯瞰市內全景的釜山塔。在釜山塔觀景台可欣賞城市和海港的全景。讓我們欣賞著釜山落日，結束這一天的行程吧。  旅行的第二天從廣安里開始吧。沿著廣安里海邊而建的形形色色的咖啡館恭候著遊客的光臨，與釜山地標——廣安大橋隔岸相望，可以在這裡享受各自的特別時光。與家人一起或者與朋友、與戀人一起，在充滿浪漫的廣安里海水浴場共同創造美好的回憶吧。  除了廣安里外，海雲台的海景也同樣美好。沙質細膩的海雲台白沙灘和位於盡頭的冬柏島也值得一去。  沿著森林和大海而建的冬柏海岸散步路上，在海景最美的地點將遇到曾舉辦APEC峰會的APEC世峰樓 。  適合觀看月出的海月亭坐落在與月光交彙的迎月路山頂。從海月亭沿著月光路通往三浦海岸路——尾浦、青沙浦和九德浦。  在韓國衝浪勝地鬆亭海水浴場享受娛樂和休閒時光。這裡設有齊全的海上運動設施，觀看馳騁在海面上的衝浪者也別有一番樂趣。  海東龍宮寺擁有美麗的海上風光，是通向大邊港的海岸散步路的起點。可以在寺廟的任何一角眺望美麗的藍色東海，據說只要認真地祈禱，至少有一個願望會實現 。  \*\*\*上文介绍的三浦海岸路“尾浦铁路”因施工将关闭至2020年6月，特此获悉。  </ITEMCNTNTS>  <PLACE>釜山2天1夜路線 2</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一石二鳥，遊玩西釜山和東釜山攻略</TITLE>  <MAIN\_PLACE>釜山2天1夜路線 2</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225416\_thumbL</MAIN\_IMG\_THUMB>  <LAT>35.054066</LAT>  </item>  <item>  <MAIN\_TITLE>1박2일코스 3</MAIN\_TITLE>  <CATE2\_NM>自訂行程</CATE2\_NM>  <LNG>129.16003</LNG>  <MIDDLE\_SIZE\_RM1/>  <UC\_SEQ>322</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薦路線&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第1天：海雲台海水浴場 - 水族館 - 冬柏島 - 迎月路 - 海東龍宮寺 -機張竹城天主教堂  第2天：松島海水浴場 - 岩南公園/松島海岸觀景路 - 峨嵋山觀景台 - 多大浦海水浴場/夢之夕陽噴泉&lt;/p&gt;  現在全世界遊客訪問的海雲台海水浴場不僅有優質的白沙灘，還充滿了各種各樣的趣味活動。以龜南路為中心每週末舉辦大大小小的活動，可讓遊客盡享大海帶來的樂趣。  在訪問海雲台海水浴場時，一定要去釜山水族館。這是代表釜山與慶南地區的海洋主題公園。這裡的隧道水族館讓人感到彷彿在橫穿海底，一直以來都吸引著來自四面八方的遊客。  海雲台海洋的真正魅力就在冬柏島彰顯。島上有美麗的散步路，春天來臨前爭先盛開的冬柏花與綠蔥蔥的樹叢融為一體，讓人感受獨特的海洋風光。  在釜山兜風路線當中不可缺少的要數迎月路，建議在這裡暫時下車走一走。在與迎月路連接的月光路上人們只要輕鬆一走就可以感到神清氣爽。在頂峰不僅有看月出的好地方——海月亭，而且林立著極有韻味的咖啡館。  與機張海洋連接的陸地末端是海東龍宮寺。龍宮寺彷彿是建在水面上的，風景也是這邊獨好。因此全年來訪問的遊客絡繹不絕。  拍攝電視劇的時候，作為佈景地而建設的機張竹城天主教堂是靜靜的波浪、涼爽的風與天主教堂固有的輕鬆感完美結合的地方。尖尖的尖塔、紅色屋頂與藍海相遇，給遊客帶來異國風趣。  松島海水浴場是一年四季男女老少都能夠訪問的綜合海洋休養地，這里以將海上纜車與雲散步路融為一體的最佳海洋景觀為驕傲，重新尋回100年松島的名聲。在遠洋如星星點點漂著的大型船舶給遊客帶來夢幻的海洋，遊客還因腳下的藍海壯觀景象感到些許緊張。  海岸觀景路和岩南公園帶給遊客的風景與松島海水浴場截然不同。遊客不僅能在沿著奇岩怪石屹立的海岸在木板設置的海岸觀景路上漫步、欣賞如畫的南海，還能在擁有魅力林道的岩南公園享受森林浴。  峨嵋山觀景台為遊客帶來與洛東江河口相遇形成三角洲的絕景和日落美景。因為在這裡能夠欣賞沙島、候鳥與夕陽等天然景觀，所以很多人來訪此地。位於洛東江河口的美麗蘆葦田也是一個讓人難忘的壯觀景象。  到傍晚時分，建議您去多大浦海水浴場，因為這裡是釜山夕陽最美麗的地方。太陽將金粉撒在海面上，漸漸西下的景觀正如電影中的一幕十分輝煌。另外，與形形色色的照明結合在一起的超大型音樂噴泉——多大浦夢之夕陽噴泉噴水時，則給人涼爽舒適之感。  華麗的東海與漣漪的南海給遊客留下深刻印象的這次旅行路線將讓釜山成為“難忘的景點”。  </ITEMCNTNTS>  <PLACE>釜山兩天一夜路線 3</PLACE>  <SUBTITLE/>  <USAGE\_DAY/>  <ADDR2/>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海雲臺區</GUGUN\_NM>  <ADDR1/>  <HOMEPAGE\_URL/>  <TITLE>感受華麗的東海與漣漪的南海的釜山之旅</TITLE>  <MAIN\_PLACE>釜山兩天一夜路線 3</MAIN\_PLAC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201936632\_thumbL</MAIN\_IMG\_THUMB>  <LAT>35.15841</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64</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2. OpenAPI 에러 코드정리**

|  |  |  |
| --- | --- | --- |
| **에러코드** | **에러메시지** | **설명** |
| 00 | NORMAL\_CODE | 정상 |
| 01 | APPLICATION\_ERROR | 어플리케이션 에러 |
| 02 | DB\_ERROR | 데이터베이스 에러 |
| 03 | NODATA\_ERROR | 데이터없음 에러 |
| 04 | HTTP\_ERROR | HTTP 에러 |
| 05 | SERVICETIMEOUT\_ERROR | 서비스 연결실패 에러 |
| 10 | INVALID\_REQUEST\_PARAMETER\_ERROR | 잘못된 요청 파라메터 에러 |
| 11 | NO\_MANDATORY\_REQUEST\_PARAMETERS\_ERROR | 필수요청 파라메터가 없음 |
| 12 | NO\_OPENAPI\_SERVICE\_ERROR | 해당 오픈 API 서비스가 없거나 폐기됨 |
| 20 | SERVICE\_ACCESS\_DENIED\_ERROR | 서비스 접근거부 |
| 21 | TEMPORARILY\_DISABLE\_THE\_SERVICEKEY\_ERROR |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 키 |
| 22 | LIMITED\_NUMBER\_OF\_SERVICE\_REQUESTS\_EXCEEDS\_ERROR | 서비스 요청제한횟수 초과에러 |
| 30 | SERVICE\_KEY\_IS\_NOT\_REGISTERED\_ERROR |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키 |
| 31 | DEADLINE\_HAS\_EXPIRED\_ERROR | 기한만료된 서비스키 |
| 32 | UNREGISTERED\_IP\_ERROR | 등록되지 않은 IP |
| 33 | UNSIGNED\_CALL\_ERROR | 서명되지 않은 호출 |
| 99 | UNKNOWN\_ERROR | 기타에러 |